

## Jespersen과 생성시형론

김 석 산

일반언어기술에 있어서 추상적인 심층형과 표면형의 양 형태가 있어서, 후자는(어떤 규칙에 의해) 전자에서 도출되는 것과같이, 서형기술에 있어서도 추상운율형(*underlying abstract metrical pattern*)과 표면형이 있으며, 후자는 대응규칙(*corespondence rules*)에 의해 전자에서 도출된다. 이것을 생성시형론(*generative metrics*)이라하며, 이 이론이 영시분석에 처음 적용된 것이 Halle and Keyser(1966)이며,<sup>1)</sup> 이의 최종수정안이 Halle and Keyser(1971a)이다.

영시를 다룬 생성시형론을 크게 3학설로 구분할 수 있으나,<sup>2)</sup> 이 논문은 생성시형론을 Jespersen과 결부시켜 다루는 것인 만큼 H-K학설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논문에서 다루게 되는 6개의諸개념의 원출처는 Jespersen(1900)이여서, 심지어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현대언어학이 궁극적으로는 de Saussure로 거슬러 올라가듯이 현대시행론은 Jespersen에 기인한다고 한다(Beruhardt 1974, 113). H-K시형론은 Chaucer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正形詩(*regulated verse*)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弱・强五音步格(the imabic pentameter; 이하 IP라 약칭 함)을 위주로 다룬 것이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 이론이 강・약음보(trochée) 내지 3단위음보인 약・약・강음보(anapest)와 강・강・약음보(dactyl)에까지 적용되고 있다(Hascall 1974, Guéron 1974, Beaver 1974b, 18ff. 등 참조).

§1. 그러면 생성시형론의諸개념을 논하기 전에 우선 이 이론의 유래를 역사적으로 살펴 보겠다.

1) 이하 H-K로 약칭 함.

2) H-K (1966, 1971a), Magnuson and Ryder(1970, 1971), Magnuson 1974; 이하 M-R로 약칭 함), 그리고 Kiparsky (1975, 1977).

IP 시행의 분석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初期이론(the strict IP 분석법)이 있었으며, 이것을 보완한 것이 소위 말하는 표준이론(the standard theory)이고, 이것을 수정하여 규칙화한 것이 생성시형론이다.

#### (1) 초기이론(the strict iambic theory)

초기이론에 입각한 IP행의 분석은 하기 4 “규칙”으로 구성되었다.

규칙(i). IP 행은 5개음보, 10개위치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에 1개내지 2개의 초과약음절 (one or two extrametrical syllables)이 임의로 첨부될 수 있다. (이 초과음절은 시행의 필수적 요소가 아니어서 보통 팔호속에 표시된다.)

(ii) 음보는 약위치(position)와 강위치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iii) 강세음절은 강위치에만 오며,

(iv) 약음절은 약위치에만 온다. •

상기 4개규칙중 (i)-(ii)는 추상운율형(이것을 Jacobson(1960)은 verse design이라 부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wswsws(w)(w)로 표시될 수 있고, (iii)-(iv)는 대응규칙(=verse instance)에 해당한다. 이들 4규칙을 충족시키는 시행을 기본정상형(the norm; regular line)이라고 일컬는다. 그러나 영시에서 상기 4개규칙을 만족시키는 정상 IP행은 하기 (2)-(3)

(2) a. Of hand, of foot, of líp, of éye, of brow(Shakespeare, Sonnet 106. 6)  
 $\begin{array}{ccccccccc} w & s & w & s & w & s & w & s \\ & & & & & & & \end{array}$

b. Her eyes, her haíre, her cheeke, her gate, her voice(Shakespeare, Tro. 1. 1. 54)  
 $\begin{array}{ccccccccc} w & s & w & s & w & s & w & s \\ & & & & & & & \end{array}$

(3) The curfew tolls the knell of parting day(Thomas Gray, Elegy written in a country churchyard)  
 $\begin{array}{ccccccccc} w & s & w & s & w & s & w & s \\ & & & & & & & \end{array}$

등이여서, 대부분의 IP행은 상기 규칙을 위배하는 비정상적인 행들로서 10개음절의 수 및 5개 강세음절 내지 강세위치에 대한 예외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4) Twenty boókes clád in blák or réed (Chaucer, A. Prol. 294)  
 $\begin{array}{ccccccccc} (w) & s & w & s & w & s & w & s \\ & & & & & & & \end{array}$

는 9음절 시행이므로 규칙 (i)을 위배하며, 또한 첫 음보인 twenty<sup>x</sup>는 약·강음보(iamb)가 아니고 강·약음보(trochee)여서 규칙 (ii)를 위배하고 있으며,

- (5) And leaves the world to darkness and to me(Gray, ibid.)  
 w s w s w s w s w s

에서는 강세위치에 약음걸어 and 내지 we가 와서 규칙 (iii)을 위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형이 상기 (1)에 의해 생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非行은 아니다. 이와같이 올바른 시형이지만 정상형(norm)에서 벗어난 시행을 허용이탈형(allowable, permissible exceptions 또는 deviations)이라고 한다.<sup>3)</sup> 영시의 대부분이 (1)에 맞는 정상형이 아니고 허용이탈형인 만큼 정상형만을 생성하게 하는 상기규칙 (1)은 ‘powerful’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Bridge(1921)는 이들 허용이탈행을 正行으로 설명하기 위해 (1)에 하기 허용이탈항목(the exceptions to the norm)인 (6)을 첨부한다.

#### (6) 허용이탈항목

1. 비강세음절로만 구성된 비강세음보(pyrrhic)의 허용. 예 : (5)의 /to me/ 음보.
2. 강세음절로만 구성된 강세음보(spondee)의 허용. 예 : 하기 (7)의 /long si-/ 음보.
3. 行頭전위음보(inverted foot, 즉 trochee음보)의 허용. 예 : (8)의 /silent/ 음보.
4. 行間전위음보의 허용. 예 : (9)의 /lend me/음보.
5. 行間초파 약음걸허용. 예 : (10)의 /2 worshipt/음보의 마지막 음절.
6. 行頭의 약음걸탈락(즉, headless음보)의 허용. 예 : (4)와 (7)의 첫 w위치에 오는 약음걸이 탈락했음.

- (7) ØSpeech after long silence; it is right.(Yeats, after long silence)  
 w s w s w s w s w s

- (8) Silent upon a peak in Darien.(Keats, On first looking into Chapman's Homer)

- (9) Friends, Romans, countrymen, lend me your ears.(Shakespeare, J.C.  
 w s w s s w s w s w s  
 3. 2. 78)

- (10) And as I past I worshipt: if those you seek.(Milton, Comus 302)  
 w s w s w s w w s w s

3) 본인은 정상형을 affirming-neutral, 그리고 허용이탈형을 affirming-complex라고 부른다(S. Kim 1981 참조).

(1)에 (6)을 추가한 것은 표준이론(the standard theory)이라고 한다 즉, 표준이론은 (1)의 1. 추상운율형, 2. 대응규칙, 그리고 3. 허용이 탈형의 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표준이론으로서 상기 허용이 탈형들을 설명을 할 수 있으나, 반면 왜 (11)과 (12)는 (6)에 의해 허용이 되는데도 비행인가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11) A life's but an empty dream.

(12) Ode to the West Wind by Percy Bysshe Shelley.

이들 양시행 중 (12)에 내포된 전위음보 (6.3), 강세음보 (6.2), 그리고 두개의 행간전위음보 (6.4)들은 (6)에 열거된 허용이탈항목들이어서 전통이론의 태두리 내에서는 (12)를 정행으로 간주해야하나, 실상 이들은 정행이 아니고 비행인 것이다. 시형론은 단순히 표준형과 허용이탈형을 항목별로 열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첫째 규칙에 의해 올바른 시행만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둘째 정행과 비행을 판가름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정행 중에서도 단순(simple, neutral)행과 복잡(complex)행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mechanism을 갖춘 이론이 Halle-Keyser에 의해 제안된 생성시형론 (13)이다<sup>4)</sup>.

(13) (a) 기본심층운율형 \*(W)SWSWSWSWS(x)(x) x위치는 약음절만으로 체워질 수 있으며, 팔호내의 요소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로 표시된 항목은 그것이 생략되면 복잡도지수가 한단위 높아진다.

(b) 대응규칙

(i) 1. s, w 내지 x위치는 한음절에 해당하거나

또는

2. s, w, x위치는 최고 2개 모음이 내포된 연쇄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연쇄음은 상호 인접된 모음으로 구성되거나 또는 양모음사이에 공명자음(sonorous consonants)이 개입된 것에 한한다  
경의 : 강세음절이 시행의 동일구문단위내의 2개 약음절 간에 위치했을 때, 그 강세음절은 최적강세(stress maximum)가 된다

(ii) 1. 강세음절은 s위치에만 오며 또한 모든 s위치에 오거나  
또는

2. 모든 강세음절은 s위치에만 온다. 그러나 모든 s위치에는 오지 않는다.

3. 최적강세는 s위치에만 온다. 그러나 모든 s위치에 오지 않는다.<sup>5)</sup>

4) 또는 개정이론(revised theory)라고도 부름.

5) (13)의 본문자체가 어색하게 표현되었으므로(하기 아주 6 Levin의 비평참조) 번역도 자연히 어색하게 되었음.

시형론의 대응규칙(13b)은 시행의 운독(scansion)과 시행의 복잡도 측정의 이중역할을 한다. 대응규칙은 또한 (i)과 (ii)의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ii)는 “또는” (or)로 구분된 3개의 擇則(alternatives)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각 택칙은 또한 “또한” 내지 “그러나”로 구분된 2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앞부분은 그 택칙의 위치(position)의 조건을 기술하며, 뒷부분은 그 조건의 적용범위 및 한계(its limitation or violation)을 규정짓는다.<sup>6)</sup>

§2.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생성시형론의 특징 및 諸 문제점은(I) 음보(foo<sup>t</sup>)와 위치(position)의 개념, (II) 최적 강세원칙(the stress maximum principle), (III). 강세중화원칙(stress neutralization), (IV) 음보 전위(inverted foot), (V) 복잡도지수 측정법(complexity index) 측정, (VI) 강세부여규칙(stress assignment rules)이다. 이 논문에서 출처가 밝혀지지 않고 괄호속에 새끼줄표(\$)로 표시된 인용문은 Jespersen(1900)에 의거하고, 페이지수 (p, 또는 pp)로만 표시된 항목은 Halle-Kayser(1971a)에 의거한다. 그리고 또한 작품의 저자명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셀스피어 작품에서 인용된 것이다.

### (I) 음보(the foot)

§1. 잘못된 음보라는 운율단위(the fallacy of the foot) (§4.2)

생성시형론<sup>7)</sup>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중의 하나가 음보라는 운율단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IP행을 종전에서와 같이 5음보, 10음절로 분석하거나, 또는 음보구분선을 직선(또는 사선)으로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10위치(position)으로만 구성된 것으로 표시한다. 그 이유를 Jesperse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14) *The delight of happy laughter.* (Tennyson)의 음보표시를 the de/light of /happy/ laughter 또는 the delight/ of hap/py laugh/ter로 하느냐에 따라서 trochaic(전자)내지 iambic(후자)로도 운독될 수 있으며, 또한(14)에서 뿐만아니라
- (15) Like to /a step/dame, or/ a dowager(Mids. 1. 1. 5)

6) Levin(1973, 608-609)는 대응규칙중 (bii)가 필요없이 너무 복잡하게 기술되었다고 지적하고 이것을 다음과 같이 3부로 단순화했다. 1,2:강세음절은 s위치에만 온다 ; 3:SM은 s위치에만 온다.

7) 여기서 생성시형론이라함은 Halle-Keyser의 이론을 두고 말한다.

에서도 옛볼 수 있듯이 음보경계선이 날말끝에 오기도하고 날말안에 오기도 하여(§4.2) 구문단위의 음보경계선이 일치하지 않는다(§19).

이와같이 음보경계선이라는 것이 휴지(the caesura)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단지 지면상의 개념(the paper idea of a "foot")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오는 곳도 매우 의심스럽고 부자연스러우며 우스꽝스러워서(absurd)(§19) 음보라는 개념을 없애는 것이 IP시행의 불규칙적인 허용이탈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4.2).<sup>8)</sup>

그리하여 Jespersen은 시행운동에 있어서 음보라는 날말 대신 위치(position)라는 날말을 사용하여, 어떤 음절은 强위치에 오고 어떤 음절은 弱위치에 온다고 한다(§24). 그리하여 그는 IP시행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IP행은 10음절로 구성되었으며(그리고 임의로 11번째 위치에 약음절이 올 수 있다), 짝수위치(the even position)에 오는 음절은 주위 음절보다 강하며, IP행의 추상운율형은 41 41 41 41 41 (4)로 진술된다(§9).<sup>9)</sup>

한시행을 일련의 음보가 아니고 일련의 위치로만 구성되었다는 주장은 Jespersen보다 거의 200년전인 1737년에 Edward Bysshe가 그의 저서 *The Art of Poetry*에서 언급했었다(Beaver 1974a, 932 참조).

음절을 표면형으로 간주하고 위치를 기저형으로 간주한다면, 한 IP행의 기저형은 보통 10위치로 구성되었으나, 표면형의 음절수는 9, 10, 11 등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즉 음절은 표면형(the line)의 단위이고 운율위치(the metrical position)은 기저형(the meter)의 단위이다(Freeman 1969, 195). 그리하여 표면형의 음절수와 기저형의 위치수가 (1)–(2)

8) Chatman (1965, 116–117)도 같은 이유로 기본운율형에 있어서 음보의 근본적 역할을 무시하여 말하기를, 음보의 사용은 심리적이고 개념적(notional)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Weirather(1980, 127)는 “On a sudden, in the midst of men and day”를 on a /sudden,/ in the /midst of /men and /day에서와 같이 강·약음보(trochée)로 또는 on a sudden, in /the midst /of men /and day에서와 같이 약·강음보(iambus)식으로도 운독할 수 있으나, 후자인 iambus식의 운독법을 택한 것은 음보와 구문경계선이 전자의 trochée운독법에서보다 더 뚜렷하게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같이 Jespersen이나 Chatman등이 음보라는 운율단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언어와 운율간의 불일치성(bracketing mismatch)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양자간의 불일치성은 시행의 복잡도와 관련된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하기 §V(복잡도지수추정법 참조)

의 예시에서와 같이 1대 1로 일치될 수 도 있고, (4)에서나 또는

- (16) Yet dearly I love you and would be loved fain.(John Donne)  
 w s w s w . s w s w s

에서와 같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4)에서는 첫위치에 음절이 결여되어 있고 (16)에서는 2음절이 한위치에 온다. 전자를 無頭위치 (headless position), 즉 0위치라하고 후자를 2음절위치(즉 synalaepha)라고 하며,

- (17) Some made you wives, and some your children.(Marlowe)  
 w s w s w s ws

- (18) Then issued she, backed with a great rout.(Surrey)  
 w s w s w s w sw s

의 하선친 부분, 즉 한음절이 2개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dieresis라고 하며, 이것은 synaloepha의 반대현상이다.

H-K는 말하기를 (12)와 같은 비행을 표준이론에서 正行으로 잘못 분석되게 되는 원인은, 첫째 시행을 음보로 구분했으며, 둘째 개개음보를 독립적으로 간주하여 인접음보간의 상호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음보들간에는 상호의존관계가 있어서 IP행에 전위음보인 trochee음보는(6.3)과 (6.4)에서와 같이 허용은 되나, 그것이 앞뒤로 두개가 겹쳐서 올 수 없는 것은 비행이되기 때문이다. 또한 뒤에가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H-K의 최적강세(SM)원칙은 2개 위치 단위가 아니고 3개 위치 단위에서 결정되며, 또한 강세음절이 앞뒤로 겹치면 SM이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인접음보간의 상호의존관계가 입증되므로 독립적인 음보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sup>10)</sup> 그리하여 H-K는 음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은 시형분석이 음보를 도입한 표준이론보다 우세하다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음보라는 개념을 Chaucer이후의 영시뿐만 아니라 고대영시분석에도 부정

9) Jespersen의 강세 표시법에서는 4가 최강세이고 1이 최약강세이나, 혼돈을 피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된 표기법, 즉 최고강세를 1로 그리고 최약강세를 4로 표시했다.

10) Hascall은 운율분석에 있어서 음보단위는 그 범위가 너무 협소하므로 行 (line)을 운율단위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다(The foot is too small a domain for definition of a meter: that domain must be a whole line) (1971,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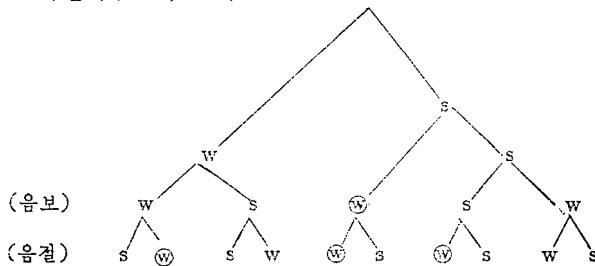


한다(p. 164 참조).<sup>11)</sup>

## §2. 음보단위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러나 시행분석에 있어서 음보단위의 필요성은 하기 사항에서 입증된다.

첫째, 시행의 강세형은 일반산문의 강세형에 기인한다고 할지라도 시행이 일반언어와 다른 점은 반복적인 요소에 있다. 즉, 시행이란 소수의 기본단위, 즉 음보가 반복되어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Kiparsky 1977, 234 참조). 그 반복요소의 형태와 수에 따라서 그 시행이 iambic(ws) 시행이냐 또는 trochee(sw), spondee(ss), pyrrhic(ww) 시행이냐, 또는 anapest(wws), dactyl(ssw) 시행이냐가 결정된다. 이 반복형이 바로 음보라는 것이며, 우리는 시행을 낭송할 때 이 반복요소를 적관적으로 의식하게 된다. Kiparsky는 IP행의 기저형의 운율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무형으로 표시한다(1977,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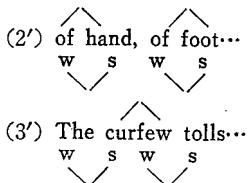


이런 계층적운율기저형에서 우리는 行間의 휴지(caesura)가 올 수 있는 곳도 예측되나, (즉 원으로 표시된 곳) 운율구조의 최하층인 음절의 단위(즉, terminal string)에만 의거한 H-K의 일선적(linear) 시행론은 시행의 이와같은 특수성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강세위주의 시가 아닌 음절위주의 시인 한국고전정형시중의 하나인 시조도 음보라는 높은 차원의 기본단위 없이는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음보는 시행의 보편적(universal)인 운율단위임을 알 수 있다.<sup>12)</sup>

11) 고대영시분석에 있어서 시행의 meter보다 rhythm(여기서는 performance, 를 주장하는 Pope (1942, 10) 같은 학자도 음보경계선은(음악에서와 같이 첫음절이 강한 강세를 받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것이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하여 음보경계선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인한다 (Kim, 1975 참조).

12) 음보단위를 도입한 중국 고전시분석에 관해서는 Chen(1979) 그리고 한국 고전시조분석에 관해서는 S. Kim (1980, 1981) 참조.

둘째, 시행의 복잡도를(강세 내지 음절수의) 음형적 요소(labeling matching)에만 의거하여 측정하는 H-K시형론에서는 음보의 결정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H-K시형론은 음형단계에서 분석이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보라는 개념을 도입한 多線的 'metrical' 시형론에서는 시행의 복잡도지수를 meter(M)과 language(L) 간의 차이를 음형차이(labeling mismatch)에만 국한하지 않고 음율분석에 필수적인 날말과 구의 구조 내지 경계선을 나타내는 구문경계선(morpho-syntactically motivated bracketings)<sup>13)</sup>과 운율단위 음보와의 일치성내지 상치성(bracketing mismatch)에도 의거하여 측정한다. 예를 들어 예시 (2)와 (3)은 모두 labeling mismatch는 없으나 (3)이 (2)보다 더 자연스러운(natural) 시행인 것은, 하기 (2')와 (3')에 표시된 바와 같이 (3)에서는 음보경계선과 구분경계선이 일치하나, (2)에서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즉 bracketing mismatch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M과 L간의 차이를 음보라는 운율단위가 무시된 H-K이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Jespersen과 H-K이론을 음보를 인정하는 他이론과 비교해 볼 때 후자인 타이론에서는 M-level에서 음보라는 단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음보로 표시된 그 행의 추상기저운율리듬(metrical rhythm)과 L-level의 표면리듬(linguistic rhythm)간의 공통성 내지 차이점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전자에서는 음보라는 단위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그 행의 M-level의 기저운율리듬은 고려되지 않고 L-level의 표면리듬만이 고려된다. 다시 말해서 IP행을 단순히 wswswwws(w)(w)의 10위치의 추상운율형으로 구성된 것으로 기술해 놓으면, 이들 단위간에 경계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복형이 ws인지 wsw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이들 추상 단위가 리듬과는 아주 상관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Jespersen이나

13) The feet are required by the bracketing that figure crucially in the perception of metrical form.

H-K이론에서는 M-level의 리듬, 즉 기저운율리듬(metrical rhythm)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된다.

## (II) 최적강세(stress maximum=SM)

### §1. 최적강세의 원칙

최적강세란 중요품사어(lexical word)에 오는 아무 1-강세를 말하는것이 아니고 앞뒤에 무강세로 둘러싸인 1-강세만을 말한다.<sup>14)</sup>

H-K시형론의 핵심은 SM원칙이다. Jespersen은 말하기를 음절의 강세도는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율적으로 중요시되는 강세는 상대적 강세이며(it is the relative stress that counts)(§10), 음절의 운율적 가치는 先·後음절과 연관시켜 결정된다고 말한다.

- (19) The metrical value of a syllable depends on what comes before and what follows it (§7).

1P행인 경우 짹수위치에 오는 음절은 주위음절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9). 이것을 H-K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 (20) When a fully stressed syllable occurs between two unstressed syllables in the same syntactic constituent within a line of verse, this syllable is called a "stress maximum" (p. 169).

즉,同一구문단위에서 2개 약음절간에 위치한 강세음절은 최적강세이며 최적강세는(짜수 음절인) S위치에만 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최적강세는 구둣점(an orthographical pause)으로 분리되지 않은 시행의 동일구문단위내에서 앞·뒤음절보다 강한 음절 즉(×/×)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3위치단위 사이에는 구분경계선을 나타내는 휴지가 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Jespersen은 음성학적으로 설명하기를, 휴지 바로 뒤에 오는 음절의 강세도는 뒤따르는 음절과 비교하지 않고서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18). 그러므로 (3)과 같은 정상(neutral) IP행에서 SM이 될 수 있는 강세음절의 수는 최고 4개뿐이며(만일 행말에 초과약음절이 올 경우에는 5개), 첫음절이 탈락된 (4)같은 IP행에는 최고 3개의 SM, 그리고 첫 음보가 전위된 (8)의 경우에는 SM이 2개밖에 올 수 없는 것은, 行末과 行頭의 강세는 SM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휴지가 3

---

14) 같은 3단위환경에서 기능어가 강세를 받았을 때 이것을 stress minimum이라고도 한다.

위치단위 사이에 개입되는 (2)와 (9)와 같은 시행에는 SM될 강세음절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H-K생성시형론의 대표적인 추종자인 Beaver는 기말하를, 시인이 운율적으로 의식하는 것은(아무 강세음절이 아니고) 최적강세음절 뿐이라고 한다(The poet is not concerned with mere 'accent' *per se*, for he is metrically conscious of stress maxima(1968, 313). 그러므로 (11), (12), 그리고

- (21) How many bards gild the lapses of time.(Keats, sonnet).
- |   |    |   |   |   |   |   |
|---|----|---|---|---|---|---|
| w | sw | s | w | s | w | s |
|---|----|---|---|---|---|---|

에서와 같이 약음절 w위치에 SM이 오면 그 행은 비행이 되는 것이다.

물론 SM이란 개념은 Jespersen에서 도출되었지만 비행을 SM원칙과 관련시킨 것은 H-K의 독창적인 이론이다.<sup>15)</sup> SM과 관련된 문제로서는 강세음절이 SM이 되기 위해서는 (x/x)의 3단위환경에서 결정된다고 H-K는 논하는데, 이것이 Jespersen의 원안인지 또는 H-K의 수정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Jespersen의 인용문 (19)의 접속사 'and'의 해석여하에 따라서 앞과 뒤의 양음절이 동시에 관련된 것으로 풀이되기도 하고 또는 앞 음절에만, 또는 뒷 음절에만 국한된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또한

- (22) The syllable occupying the even places are raised by their force above surrounding syllables(§9)

의 주위음절의 해석조차도 애매하다. Magnuson-Ryder(1971, 201-202)에 의하면 Jespersen의 설명은 2단위환경에서 비교한 것(binary comparison)이지 3단위환경에서의 비교한 것(ternary comparison by both its right and left context)는 H-K의 수정안이라고 한다.

또한 강세의 상대성이 대해 Jespersen은 언급하기를 운율적으로 중요한 것은 상대적 강세(§10)여서, 동일강세음절이라도 구분의 위치에 따라서 강세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 (23) Peace, children, peace! the King doth love you well(R3 2.2.17)

---

15) 엄격한 의미에서 Jespersen의 이론을 시형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이론은 단지 한 시행이 어느 정도 경상형에서 이탈('disappointment')했느냐, 즉 약위치에 강세음절이 온다든지 또는 강세위치에 약음절이 온다든지를 지적할뿐이지, 주어진 규칙에 의해 비행을 규정짓지는 못한다. 그의 이론은 몇개의 원칙의 제시에 지나지 않는다.

의 첫 4음절의 강세형은 1 2 4 1 또는 1 3 4 1로 표시한다. 또한 약음 절인 경우, 강세음절에서 보다 멀리 떨어진 4강세음절이 강세음절에 인접한 약음절보다 강하여서 3-강세음절로 상승하나(예 happily 144-143), 반면 강세음절 바로 뒤에 오는 1-강세음절은 2-강세음절로 하락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자기가 맨 처음 발견한 것이라고 한다(§12). H-K (1966)도 처음에는 상대적 강세원칙에 의해 강세, 비강세의 2개 (binary) 강세형이 아닌 다수(multivalued) 강세형으로 SM을 규정했다.

- (24) A stress maximum is constituted by a syllable bearing linguistically determined stress that is greater than that of the two syllables adjacent to it in the same verse (p. 197).

즉, SM은 동일구어에서 앞·뒤의 兩음절보다 강한 강세이다. 그러나 이런 SM의 정의로서는 너무나 많은 시행들이 비행으로 판정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예를 들어

- (25) With this <sup>x</sup>quicksilver<sup>x</sup>, shortly for to say.(Chaucer G. Cy. 1111)  
 w s      w s w

에서 하선쳐진 W음절에 SM이 오게 되어 (25)는 비행이 되게 되며(H-K 1971a, 169 각주 13 참조), 또한 whenev<sup>x</sup> 같은 낱말은 代副詞여서 강세어가 아니지만 둘째 음절이 앞뒤음절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SM이 될 수 있다고 하겠으나, 대부사(deictic adverbs)는 기능어여서 기능어의 강세음절은 SM음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1971년에 와서는 Jespersen과는 달리 강세를 상대적 다수종원칙에서 벗어나서 (20)에서 와 같이 강세와 비강세의 2개 강세만으로서 SM을 규정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SM원칙의 수 많은 예외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영어강세부여규칙을 다음과 같이 대폭 수정했다. 첫째, ‘형용사+명사’旬의 양요소가 동일 1-강세(즉 level stress)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Halle 1970 각주 6, H-K 1966 각주 2) 또한 하기 강세조종규칙(prosodic rule)(26)을 설정하여 복합어의 양요소가 동일 1-강세를 받게 하였다.

- (26) Both stresses would count metrically since both stresses are the full stresses within their respective words, namely *black* and *bird* (1971a, 171).

즉, 이것은 영시에는 일반언어의 복합어내지 句강세부여규칙(NSR)이 적용안된다(suspended)는 것으로 풀이되겠다.

§2. 최적 강세원칙의 검토 및 비평문제는 Kiparsky(1975, 578)도 지적 했듯이 SM재원칙을 살피기 위해 상기 (26)에서와 같이 복합어내지 ‘형용사+명사’ 구의 강세조정규칙을 주장하므로, 이 결과(25)의 quicksicker의 복합강세형과 (7)의 long silence의 ‘형용사+명사’의 구문강세형이 동일시되어 구별이 안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하기 §VI “강세부여 규칙” 참조). 뿐만 아니라

- (27) Shall we hear from you, Catesby, ere we sleep.  
w  
 (28) She may help you to many fair preferments.  
w

에서와 같이 SM을 ‘위배’ 하는 정형들이 많으니(이런 형들은 Kiparsky 1975에 무수히 지적되었음) SM원칙은 너무 강(strong)하여, 반면,

- (29) \*With malign weakness benumbs feeling.  
w      w  
 (30) \*Pluck immense teeth from enraged tigers' jaws.  
w      w  
 (31) \*And to banish old age when youth hath lost.  
w

와 같은 가상형은 비운율적인데도 SM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므로 정형으로 간주되므로, SM원칙이 너무 약(weak)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한 H-K(내지 Jespersen)의 시형론의 결점은 시행의 운율을(위배할 수 있는) 강세(stress) 형에 의해서만 결정하고 (meter does not depend on stress alone(Kiparsky 1975, 591))(위배할 수 없는) 날말 및 구의 구조 (the grammatical structure of word and phrase(ibid. 592)), 즉 어떤 날말이 1음절이거나 2음절이거나 또는 강세음절로 시작하느냐 비강세음절로 시작하느냐, 그리고 앞에 경계선이 오느냐 안 오느냐 등을 참작하지 않았는데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Kiparsky (1975, 583)는 SM원칙의 대안으로 자기의 운율규칙 MR1과 MR2를 제시하였다.

- (32) MR 1: [1 stree] → [ $\alpha$  stress]  
 MR 2: [4 stress] → [ $\beta$  stress] / { #        # (a)  
P #        (b)

여기서  $\alpha$ 와  $\beta$ 는 变项(variable)으로서 1강세에서 4강세까지를 의미한다

MR1은 S위치에는 아무 강세도 올 수 있다는 규칙이고, MR2는 W위치에 강세가 올 경우 다음 2개 제약, 즉 2a의 일음절어제약(monosyllabic constraint)<sup>16)</sup>과 MR2b의 多음절어제약을 가하는 규칙이다. 다시 말해서 약위치에 오는 강세음절은 일음절이든지 일음절이 아닌 多음절인 경우에는 그 낱말은 구문경계선(intonational boundary)이 바로 앞에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7)</sup> 그리하여 (27), (28)은 MR2a에 의해 허용되고, (29), (30)은 MR2b를 위해하기 때문에 비행이된다. 즉 (29)와 (30)에서 하선이 쳐진 W위치에 오는 강세음절은 첫째음절(initial syllable)이 아니며, (31)에서는 하선쳐진 음절이 첫째이지만 ((29), (30)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구분경계선이 선행할 수 없기 때문에 비행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Kiparsky의 대안이 H-K의 SM원칙보다 예외현상을 덜 초래하는 것이기는 하나 완벽한 이론이 되지 못한 것은, (32)의 MR2a에 의하면

(34) one, two, three, four, five, six and eight, nine, ten.

같은 일음절어로 구성된 가상 IP행들도 모두 正行으로 판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 (12)의 Percy는 H-K의 SM원칙이나 Kiparsky의 MR2b를 위해하는 것이 되나, 만일 2음절어 Percy를 2개의 -음절어 Anne and로 대치한 경우, 그 가상형(35)

(35) Ode to the West Wind by Anne and Bysshe Shelley

는 MR1에 의해 정행으로 판정되게된다. 그러면 (35)가 (12)보다 나은 시행인지? (Barnes and Esau, p.217 참조). 이런 면에 있어서 MR2b는 너무 약(weak)하며, 또한 MR2b는

(36) Would create soldiers, make our women fight. (Mac. 4. 3. 187)

(37) Who cannot condemn rashness in cold blood. (Tim. 3. 5. 52)

와 같은 정행을 비행으로 판정하게되기 때문에 그의 규칙을 너무 강(strong)하다. 이와 같은 행은 셀스피어시에 드물기는 하나 입증된 행들

16) 그러나 Harvey(p. 68)는 일음절어에도 제약이 가해져야 한다고 한다.

17) 2음절복합어의 구성요소는 2개의 일음절 낱말이므로 MR2a가 적용되어 첫 요소 뿐만 아니라 둘째요소도 w위치에 오는 것이 허용된다.

(33) Since the members of compounds are themselves words, MR2a is applicable to them, and allows both the first and the second member of a compound to occur in weak position (1975, 586).

이다(Harvey, p. 69 참조).

### (III) 강세중화 원칙(stress neutralization)

H-K의 규칙에 의하면 IP행에서 강세음절은 짹수인 S위치에 오는 것 이 정상적이나 강세중화를 초래하는 위치 (38)에서는 홀수인 W위치에 와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 (38) 1. 음보전위로 인하여 강세음절이 行頭에 올 때.
- 2. 行間에서 강세음절이 앞뒤로 겹친 때.
- 3. 行間위치에서 바로 앞 또는 뒤에 중요구문경계선이 올 때.

(38.2)의 강세중화규칙은 Jespersen보다 300년전 영시시형에 관한 첫 비평 논문을 쓴 Gascoigne의 논문 (1575)에서 엿볼 수 있다. 그의 시형에 관한 공헌은 강세중화에 관한 것으로, 1음절강세어가 앞뒤에 겹친다고 해서 그 시행의 윤율성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세조절(stress subordination)이나 강세중화(level stress)규칙으로서 이와같은 시행의 윤율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38.3)은 Kiparsky의 MR 2b에 해당한다). 예 :

- (39) Wondering upon this word; walking for drede.(Chaucer)  
 w s w s w s      w s w s

또한 같은 강세중화원칙 (38.3)에 의해 강세음절의 앞뒤에 약음절이 오더라도 (40)에서와 같이 그 강세음절은 SM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40) That I may rise and stand, o'er throw me and bend.(Donne)  
 s

Jespersen은 휴지(pause), 즉 구문경계선의 영향에 대해 말하기를, 휴지 바로 뒤에오는 음절을 들었을 때 그 음절이 강세음절인지 약음절인지라는 바로 뒤에 오는 음절과 비교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으며, 중요구문경계선으로 분리된 앞뒤 음절간의 상호관계를 판정하기 매우 힘들다고 말한다(§18). Jespersen은 이에 말하기를 상기 (15)와

- (41) Lie at the proud/ foote of/ a conqueror.(John 5.7. 113)  
 (42) Day, night, hour, tide, time, worke, and play.(Rom 2.5. 178)  
 (43) Rocks, caves, lakes, fens, bogs, dens, and shades of death.(Milton PL.  
 2. 621)

에서와 같이 전위음보(trochée)를 쉬지 않고 읽으면 귀에 그슬리나(inha-

rmonious), 전위음보간에 휴지를 두고 읽으면 귀에 그슬리지 않는다 고 한다(§19, §10). 그리하여 휴지의 역할로 이와같은 비정상적 운율성 (metrical irregularities)을 “감춰준다”는 것이다. (§22).

전통표준이론에서는 이탈형 (deviations)을 이와같은 중요구문경계선과 결부시켜 설명하지 않으며 또한 못한다. 즉, 전통이론에서는 (38)의 3 항목간에는 아무런 상호관련성이 없는 독립적 허용이탈항목형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취급했으나, Jespersen은 IP서 이들의 허용성을 휴지와 관련시킨 강세중화원칙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 사실을 H-K(1971a, 169)는 상기 (13bi)의 “정의”에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Jespersen이 말하는 휴지(pause) 또는 H-K의 중요구문 경계원(major syntactic break)의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H-K(1966)에서는 중요구문경계선을 단순히 구둣점(orthographical pause)인 comma, semicolon, colon 내지 period(1971a, 168 참조)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들 구둣점이 올 수 있는 위치는 감탄사와 다음 句간, 인용문 앞, 삽입구의 앞뒤, 복합문절 사이(p. 203 이하), 그리고 연속항목들 간이라고 한다. 그러나 휴지는 매우 임의적이여서 시인에 따라서 구둣점의 위치는 다를 수 있다. 만일 휴지를 구문단위간의 표시로 풀이한다면

(44) Thou joy'st in better marks, of sail, of air. (Jenson, To Penhurst 7)

에서 가장 큰 휴지는 주어(NP)와 술어(VP)간에 오게되나, 우리는 이 곳에 구둣점을 찍지 않는다. 구문경계선의 정의와 이의 적용법이 확립되지 않는 한 강세중화에 의한 SM의 수의 변동이 있기 마련이다. 또한 산문의 구문경계선의 기능과 시의 구문경계선의 기능이 통일하다고도 할 수 없다. 이런 차기점이 H-K이 표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 (IV) 음보전위(inverted foot)

시행은 보통 정규(regular periodic) 시행과 비정규(irregular; aperiodic) 시행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정규시행은 모두同一음보로 구성된 것이고, 비정규시행은 상이한 음보가 내포된 것이다. 예를 들어 iamb음보만으로 구성된 시행은 전자에 속하고 (45), (46)에서와 같이 iamb시행에 이질적 trochee같은 他음보가 내포된 시행은 후자에 속한다(Halle 1970, 75-76 참조). 고대에서에서 A행과 B형은 전자에 속하고 C, D, E형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45) Told by / an id / iot, full / of sound / and fury. (Macb. 5.5.27)

(46) Tyrants / themselves / wept when / it was / reported. (R3 1.3.185)

Jespersen (§2)는 상기 trochee음보가 내포된 IP행을 인용하면서 말하기를, IP시행에 이질음보인 trochee음보가 하나 또는 두개가 내포되어서도 귀에 그슬리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뭣이냐고 자문한다. 표준이론에서는 (6.3)과 (6.4)를 단순히 허용이 탈형 내지 ‘poetical licenses’라고만 간주하고, 이것은 또한 일반적으로 단조로운 리듬에 다양성을 기여하는 것으로만 알려져 왔다.

만일 전위음보가 시행의 음율의 단조로움을 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전위음보는 시행의 아무 곳에나 올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König의 통계 (Jespersen, §3 참조)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IP행에서의 전위음보는 첫음보에 가장 자주 일어나고 그 외 음보에서는 드물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Jespersen (§18)은 휴지와 결부시켜 설명하여 말하기를, 시행에서 휴지는 아무 곳에서나 자연스럽게 올 수 없다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 전위음보가 行頭에 오는 것은 先行이 휴지로 끝나기 때문이다. 휴지나 전위음보가 한간, 특히 둘째 음보에서는 드문것은 IP행이 2-8로 구분되면 불균형 하에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며 또한 (47)에서와 같이 8음절 뒤에서는 더욱 드문것은, 8-2의 불균형으로(시의 앞 부분에서는 정상적 iamb음보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끝 부분에서는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47) Appear in person here in court. Silence. (Winter's Tale 3.1.10)

Kiparsky (1975)도 전위음보는 (MR2b에 의해 허용되는 행두전위음보를 제외하고는) 주로 짹수음보(둘째와 넷째음보)에 자주 일어나고 홀수음보(셋째와 다섯째음보)에는 드물다는 것이다. 또한 전위음보는 같은 조건하에서는 시행의 앞부분, 즉 넷째보다 둘째음보에, 그리고 다섯째음보보다 셋째음보에 더 자주 일어난다. 그 이유는 行끝부분에 가서는 음율복잡도지수(MTI)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Smith가 말하듯이 시의 끝부분은 비교적 보다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Kiparsky 1975, 594; 1977, 235 참조). H-K (pp. 174-75)는 전위음보를 SM원칙과 결부시켜 말하기를, 전위음보는 (38.3)에 의해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Kiparsky가 지적했듯이 (15)와 (41)의 셋째음보에서와 같이 전위음보는 휴지와 관련된다고 Jespersen(§19)은 주장하나<sup>18)</sup> 실제 Jespersen의 많은 인용예시 중에는 전위음보 내지 구문경계선이 와서는 안될 행들이 있으며, 만일 trochee음보의 첫 강세음절과 둘째 약음절 간에 휴지가 오게 되면 ((41)에서와 같이) 매우 부자연스러운 행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H-K(1971a)의 SM원칙에 의해 전위음보가 행 두 또는 행 간의 節頭에 만 허용이 되며 동일구문단위에서는 (48)에서와 같이 1-장세음절 뒤에서 허용이 되나, (49)에서와 같이 비강세음절 뒤에서는 허용이 안되는 것은 SM원칙을 위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48) With cold/<sup>acute</sup>pale weak/<sub>w</sub>ness numbs/<sub>s</sub>each feel/<sub>w</sub>ing part.(Ven. 892)

(49) Suff'ring/<sub>w</sub> my/<sub>s</sub> friend/<sub>w</sub> for my/sake to/<sub>w</sub> approve her.(Son. 42)

그러나 (49)는 비록 H-K의 SM원칙에는 위배되어 비행으로 간주되나 Kiparsky의 MR2a에 의하면 정행으로 분석되므로 H-K의 SM이론은 경행을 생성치 않는 너무 강한 이론임이 입증된다.

Kiparsky는 IP행의 trochee전위음보가 올 수 있는 조건을 (32)의 MR 2로 설명한다. 그리하여 (49)의 넷째 전위음보는 MR 2a에 의해 허용되고 첫 음보는 MR2b에 의해 허용되나

(50) \*To re/<sup>acute</sup>fuse virtue in thy nakedness  
<sub>w</sub>

의 둘째 전위음보는 MR2b를 위해하여 비행이 된다.

또한 Jespersen은 iamb행에서의 전위음보 현상과 비교하여 말하기를 iamb행내의 trochee전위음보는 “반가운 손님으로 영접되나, trochee행에의 iamb전위음보는 침입자로 간주된다”는 것이다(an iambus in a trochaic meter is an unwelcome intruder, while a trochee in an iambic line is hailed as a friendly guest) (§3). 그 이유를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25).

(51) a. Tell me not, in mournful numbers

18) Jespersen에 의하면, 휴지(pause)는 전위음보의 직접적 원인이며, 휴지(pause)로 말미암아 전위음보로 초대되는 운율의 불쾌한 리듬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주현, p.208이 하 참조.

b. Life is/but an empty dream. (Longfellow, A psalm of life)

상기 trochee시행 (51b)의 첫 음보를 (52)의 a내지 b로 대치해 보자 :

- (52) a. (=11) A life's/but an empty dream  
b. To live's/but an empty dream.

그러면 trochee행의 운율은 완전히 ‘망쳐진다’ (completely spoilt)는 것이다. Jespersen은 그 이유를 첫 음보가 4-1강세형대신 1-4강세형을 받게 되면 다음에 오는 4-1강세형의 음보때문에 4-1/1-4에서와 같이 2개 강세음절이 겹치게되어 그 행은 2개의 복잡도지수(disappointment)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Jespersen(§24)은 다음과 같은 운율표시로 설명한다. 강약음보가 정규적으로 반복되어서 ‘disappointment’가 없는 trochee행의 운율형은 (53)과 같이 표시되나.

(53) a＼b／a＼b／a＼b／a

상기 (52)는 첫 두음절이 전위되어, 즉 2개 ‘disappointment’가 초래되어 (54)의 운율행으로 표시된다.

(54) a／b＼a＼b／a＼b／a.

또한 약·강음보가 정규적으로 반복되어서 ‘disappointment’가 없는 IP 행의 리듬은 (55)와 같으나,

(55) a／b＼a／b＼a／b＼a／b＼a／b

반면 첫 4음절의 강세형이 1241(=H-K의 1141)인 (23)의 운율형은 (55')에서와 같이 첫 음절의 강세형만 다르고 나머지 강세형은 표준형과 같기 때문에 disappointment가 1에 불가하다.

(55') a＼b＼a／b／a／b＼a／b＼a／b

그래서 iamb행내의 전위음보는 용납(tolerate)할 수 있으나, trochee행내의 전위음보는 쉽게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A trochee among iambs [is] easier to tolerate than inversely an iamb among trochees...hence, the disinclination to ‘invert’ in trochaic rhythms”(§25). 그러나 Newton (1975, 128)이 지적했듯이

(56) Walked the fair lady from her sleep.(Shelley, Mariannes dream 142)

의 trochee행에서와 같이 iamb전위음보도 가끔 1241강세형대신 1421강

제형을 취하게 되므로, (56)의 trochee시행의 ‘disappointment’ 수는 2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Jespersen은 1241강세형외에도

(57) In the sweet pangs of it remember me.(PL. 8. 499)

의 첫 4음절, 소위 말하는 a double iamb(xx//)의 4321의 변형강세형은 지적했으나 1421의 변형은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나 Jespersen은 (52)를 비행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이것을 봐서 Jespersen의 이론은 시형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H-K는 (52)가 비행인 것은 SM원칙과 결부시켜 설명한다. 즉 trochee시행의 行頭에 iamb전위음보가 허용된다면 W위치에 SM이 오게되어 (13bii3)을 위배하게 되므로 비행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52)를

(58) Your life lacked an empty dream

로 고쳐쓰면 강세증화원칙에 의해 (13bii3)을 위배하지 않게되어 正行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52)의 but에 강세를 두면 이것 역시 SM원칙을 위배하지 않게 되어 정행이 되지 않겠는가? (Klein p. 45 참조). 그러나 Jespersen이나 H-K의 원칙을 수정하여, trochee행의 첫 음보가 전위되면 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 3 음절이 비강세일 때만 한해서 비행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Jespersen(§25)도 trochee행이 4214(=H-K의 4114)의 전위음보로 시작하면 iamb 전위음보에서와 같이 disappointment의 수가 1이에서 마찬가지도 허용되나(the line should be as tolerable as an iambic inversion), 4213(=H-K의 4114)의 trochee전위음보의 예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그러나

(59) Her sweet face from brow to chin.(Tennyson, The lord of Burleigh 62)

은(Jespersen도 인정하는 듯한) Neuclear Stress Rule(NSR)에 의해 1341형 trochee의 전위음보형이 가능하며, Newton (p. 129이하)이 지적했듯이, 이런 전위구문형은 극히 정상형이다. Jespersen과 H-K는 왜 이런 일반적 구문형의 전위형이 iamb행에서보다 trochee행에 들 자주 쓰이느냐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Newton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이런 전위음보가 내포된 8개의 문장형을 하기(60)에서와 같이 빈도순의로 나열하여 이중에서 첫 두형이 가장 뚜렷한 전위형이라고 한다.

- (60) 1. Det+Adj+N

예 (59)와

This heart's hell seem paradise. (Wordsworth, Hint from the mountains 28)

2. Prep+Adj+N

Of true virgin here distressed. (Milton, Comus 905)

3. Conj+Adj+N

When chill night that are demands. (Wordsworth, Song for the wandering jew 24)

4. etc.

Newton(pp. 133-34)이 조사한 여러 시인들의 시에 나타난 행두전위음보(initial inversion)의 통계표에 의하면, trochee시행에서보다 iamb시행에서 일어나는 전위음보율이 4배나 되며, 또한 IP에 비해 iambic tetrameter에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Newton이 조사한 시인중에서 Keats와 Shelley시에 나타나는 행 두 강·약전위음보(initial trochaic inversion)는 각각 3.6%와 5.2%로 이들은 행두전위음보를 가장 많이 쓰는 시인에 속하는 반면, Longfellow의 817행의 "Hiawatha"는 0.9%에 달해서 거의 안쓰는 편에 속한다. Jespersen이 Longfellow의 "Haiwatha"에서 예를 든것도 그의 이론을 보편화하기 위한 예이다.

Iamb행에서는 전위음보가 항상 가능하지만 trochee행에서는 행의 둘째 위치에 강세음절이 올 때 한해서 허용되기 때문에 전위음보가 전자에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다(Inversion is *always* possible in an iambic line, while it may occur in a trochaic line only if the second(S) position contains a major category word stress, which is not always the case) (p. 135). 그러나 Newton(p. 138)은 어떤 차이점은 양운율형 간의 구조적 조건에서가 아니고 리듬의 심리적 역할(a psychological dynamism of rhythms)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한다.

#### (V) 복잡도지수 축정법(metrical tension index; metrical complexity)

시행은 正行과 非行으로 구분되며, 정행은 또한 기저추상운율형(underlying abstract metrical patterns)과 표면파생운율형(derived metrical pattern)간의 차이의 정도여하에 따라서 복잡도지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2), (23) 그리고 (46)중에서 (2)는 기저형의 강세형이나 음절수가 표면형의 것과 1대 1로 일치하여 복잡도지수가 0인 탄순(neutral,

simple, unmarked) 시행인 반면, (23)과 (46)는 양자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복잡’ 한(complex, marked) 시행이다. 그러나 후자의 복잡한兩행 중에서도 (23)은 기저형과 표면형 간의 차이가 첫 음보만에만 국한된 반면 (46)은 6음절 이상이 상이하므로 후자가 전자보다 더 복잡한 시행인 것이다. 기저형과 표면형 간의 차이는 또한 opacity의 개념으로도 설명된다. 즉 양자간의 관계가 멀면 멀수록 그 시행의 기저운율형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시행의 복잡도를 현대에 와서 처음으로 조직적으로 분석한 것은 Halle (1970, 71이하)이며, 이의 최종형태는 H-K(1971a, 169)이다. 물론 시행의 복잡도의 원개념은 Jespersen에서 유래되었으며, 그는 시행의 복잡도를 기저형과 표면형 간의 차이점(disappointment)으로 표시했다. Jespersen은 말하기를 어떤 시행을 읽었을 때 그 시행이 유쾌감(a pleasing effect) (§17)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는 불쾌감(the unpleasant effect) (§16)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시행의 운율(meter)이란 것은 어떤 경해진 운율단위가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sup>19a)</sup> IP행인 경우 강·약음 절 단위는 다섯 번 반복되어 형성된다. 이 단위가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반복되었을 경우, 그 행은 유쾌한 운율이나, “기대에 어그러지게” 될 때는 반대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것을 Jespersen은 disappointment (=the deviation of the expected pattern §16)이라고 본다. 어떤 시행이 어느 정도 기본운율형(canonical)에서 벗어나느냐, 즉 어느 정도 불쾌감을 초래하느냐는 ‘disappointment’의 수와 정비례한다. 그리하여 (53)과 (54)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복잡도지수가 0인, 즉 disappointment의 수가 없는 (2)같은 IP행은

(61) a/b\ a/b\ a/b\ a/b\ a/b

과같이 표시되나 (§9), 첫 음보가 spondee로 시작되어 disappointment의 수가 1인 (23)은

(62) a\ b\ a/b\ a/b\ a/b\ a/b

로 표시된다(§11). 그리고 (46)의 S위치에 오는 둘째 음보의 -selves와 열째 음보의 was를 Jespersen식으로 강세음절로 간주하면 이 행의 disappointment의 수는  $\frac{2}{10}$ 가 된다(§2). 그러나 Kiparsky(1975, 578)가 지적

---

19)a) 여기서는 Jespersen이 음보라는 단위를 인정하는 것 같다.

했듯이,

(63) \*For when came poison from so sweet w<sub>flowers?</sub>

와 같은 가상행의 disappointment의 수도 마찬가지로 쓰이지만, (63)만이 자기의 (32)의 MR2a를 위배하여 비행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Jespersen의 disappointment원칙으로는 유표적인 정행(marked metricale lince)과 유표적인 비행(marked unmetrical lince) 간의 구별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1)과 (6)이 합친 표준이론에서는 더욱 다룰 수 없는 것은, 이 이론에서는 시행의 복잡도도 측정할 수 없을뿐 더러 정행과 비행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준이론의 허용이탈항목들 (6)의 나열 순서는 일정한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동립적 타당성이 없는 ad hoc한 것이어서, 시행의 상대적 복잡도를 이들 항목의 순서에 의해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H-K는 말하기를 자기들의 운율규칙(13)으로서는 시행의 운율복잡도지수를 규칙에 의해 올바르게 측정할 뿐만 아니라 비행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상운율형과 실제시행 간의 관계를 다루는 대응규칙(13b)이 제시된 여러 택칙의 순서배열은<sup>19b)</sup> 보편성의 순위로 배열되었으므로, 이들의 순서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택칙은 복잡도의 높은 순위로 배열되었으므로 이들의 순서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택칙은 복잡도의 높은 순위로 배열되었으므로 後택칙에 의해 운동된 위치(position) 내지 시행 전체의 복잡도지수는 先택칙에 의해 운동된 것보다 높다. 즉 각部의 첫택칙에 의해 운동된 시행은 무표적인 단순(neutral)시행인 반면 후택칙에 의해 운동된 시행은 복잡한 유표적인 시행이다. 시행의 복잡도는 대응규칙의 적용수<sup>20)</sup> 정비례한다. 그러므로 대응규칙이 많이 적용되면 될수록 그 만큼 그 시행의 원기본심층형을 식별하기 어렵게 된다.

상기 대응규칙에 의해 시행의 복잡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이의 한 예로 (21)의 복잡도지수를 (64)에서와 같이 산출해 보자. (13b)의 (i)은 음절수와 관련되고, (ii)는 강세와 관련된 규칙이다.

먼저 강세와 관련된 것을 검토해보자. 첫째, (ii. 1)을 위배하는 위치

19b) 그러나 각 택칙내의 전후부간의 순서는 복잡도와 관련 없다고 한다.

20) 대응규칙의 적용도수는 下線으로 표시된다. (p. 176)

에는 하선이 하나 쳐진다. 즉, S위치에 비강세음절이 올 때와 W위치에 강세음절이 올 때, 하선이 하나씩 쳐진다.

(64') How many bárd's gíld the lapses of time  
 w s w s w s w s

둘째, (ii. 2)에 의해 강세가 오는 W위치에는 다시금 [하선이 하나 더 쳐진다.]

(64'') How many bárd's gíld the lapses of time.  
 w s w s w s w s

마지막으로, (ii. 3)을 위배하면 하선이 또 하나 쳐진다. 그리고 이것은 SM원칙을 위배하게 되므로 비행을 나타내기 위해 사선(/)이 동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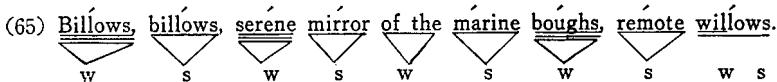
(64''') How many bárd's gíld the lapses of time.  
 w s w s w s w s

다음으로 음절수와 관련된 (i. 1)을 위배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2)은 (i. 1)이 적용된 행이고, (16)은 (i. 1)이 적용 안되어 (i. 2)가 적용된 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시행 (2)나 (3)은 (13)의 (i)과 (ii)의 각 첫번째 택칙 (i. 1)과 (ii. 1)에 의해 운동되며 (아무 규칙을 위배하지 않았으므로) 음절수와 강세분배가 기저형과 같아서 복잡도지수가 0인 기본단순행이나, 반면 시행 (5)의 넷째 S위치에 오는 and와 다섯번째 S위치에 오는 me는 (ii)의 첫 택칙, 즉 (ii. 1)을 위배하여 하선이 각각 하나씩 쳐져서 이 행의 복잡도지수는 2가 된다. 그리고

(64) Báttér my heart, thréee-pérsón'd Gód for you. (Donne, Holy sonnet 14)  
 w s w s w s w s w s

는 첫 S위치와 마지막 S위치가 (ii. 1)을 위배하여 하선이 각각 하나씩 쳐지고, 또한 첫 W와 셋째 W위치는 (ii. 2)를 위배하여, 각각 두개의 하선이 쳐져서, 이 행의 총복잡도지수는 6이 된다. (16)은 둘째 W와 셋째 W위치가 (i. 1)을 위배하여 한개의 삼각형하선이 쳐지고, 셋째 S위치는 (ii. 1)을 위배하여 한개의 하선이 쳐져서, 이 행의 총복잡도지수는 3에 이른다. 반면 (12)와 (64)의 넷째 W는 (ii. 3)을 위배하여 비행이 되는 것이다.

한편 하기 (65)와 같은 가상행의 복잡도지수는 17에 달한다.



그러나 이런 행들은 실제로 시에 입증된 것 같지 않다. 이와같이 H-K의 개정이론에서는 필요이상의 다양한 운율형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행은 (일반 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허용은 되나 입증되지 않은 행들이다. 만일 행의 복잡도지수가 그 행의 난이도와 적결되고 또한 시인은 십자말풀이 (crossword puzzle)와 같이 복잡하여 문학적 효과를 파악하기 곤란한 시를 쓰지 않는다고 가상한다면, 시행의 복잡도지수의 상위권이 정해져 있으리라. H-K는 가능한 복잡도지수의 상위권을 15로 정하나(또한 Kiparsky 1975, 584 참조) 실제로 복잡도지수가 9이상인 시행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Beaver(1974b, 15이하)는 복잡도지수와 관련된 他요소(예를 들어 Freeman 1968 참조)는 제외하고서도 자기의 諸강세부에 규칙에 의해 SM의 수를 달리 산출한 결과, H-K의 복잡도지수와 자기가 산출한 복잡도지수간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런 H-K의 복잡도지수 측정법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Standop 1975 참조). 예를 들어

첫째, 강세위배형을 두 종류로 분류한다면, 하나는 S위치에 강세음절이 오지 않아서 그 행의 총강세수가 감소되는 경우와 또 하나는 W위치에 강세음절이 와서 그 행의 총강세수가 증가되는 경우이다. Standop에 의하면 강세수의 증가는 강세수의 감소와 마찬가지로 시행의 복잡도지수를 높인다는 것이나, H-K에서는 이를 다르게 풀이하여, 전자인 경우에는 하선을 하나만 치나, 후자인 경우, 즉 W위치에 강세음절이 올 경우에는 하선을 두번쳐서 정상형(the norm)을 두면 위배한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것은 비논리적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위치에 오는 비강세음절도 못지 않게 정상형에서 벗어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세음절의 수가(정상수인) 5개이상 되는 시행은 강세음절의 수가 정상수보다 낮은 시행보다 드물어서 전자가 시행의 운율을 더 위배하므로 시인은 정상강세 수를 초월하는, 복잡도지수가 높은 이런 시행을 쓰기 꺼려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강세는 energy”에서 그만큼 energy를 더 소모하게 되기 때문이다(Jespersen 1922, 271) (Stress is energy...To pronounce

unce a 'stressed' syllable all organs are exerted to the utmost... Unstressed syllables, on the contrary, are pronounced with less exertion in every way.)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시에는 강세음절의 수가 감소된 행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이런 강세음절 수가 감소된 시행이 산문과 같은 것은 산문에는 정규시에 비해 강세음절 수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66)와 같은 산문형 시행은 유명한 (43)보다 복잡도지수가 낮다는 것이다.

(66) Shall I compare thee to a summers day? (Sonnet 18).

둘째, H-K는 복잡도 지수계산법에 있어서 음절수의 위배, 즉 (13)의 (i)과 강세위배, 즉 (ii)를 동등히 취급하고 있다.<sup>21)</sup> 그러나 (i)의 위배 형이 (ii)의 위배형보다 더 심각한 것 같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시행을 낭송할 때 2음절은 한음절로 읽는 것이 강세위배형보다 더 저항감을 높이기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H-K에서는 行頭삭제음절 (an unoccupied first position) ((4), (7) 참조)도 2개음절이 한음절로 간주되는 것과 동등히 취급하여 양자의 복잡도지수를 1로 간주한다(Harvey, p. 66 참조). 그러나 반면 Kiparsky(1975, 580)는 H-K의 (13)의 (i)을 자기의 음형조정 규칙 (prosodic rule)도, 그리고 (ii)를 자기의 운율규칙 (metrical rule)로 간주하므로서 (i)의 복잡도지수와 (ii)의 복잡도지수의 관계를 다르게 풀이한다. Kiparsky는 prosodic rule을 위배하는 행에는 복잡도지수를 산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prosodic rule을 위배하는 복잡도지수가 얼마나 큰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Harvey, p. 68 참조). 복잡도지수측정에서 prosodic rules와 관련된 시행을 제거하는 이유는 2개음절이 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해서 그 행의 복잡도지수가 증가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1975, p. 584 각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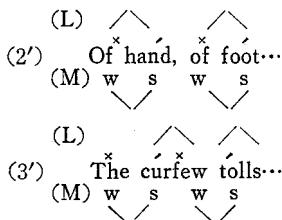
Kiparsky(1975, p. 584)의 시행의 복잡도지수 측정법은 또한 단 면에서도 H-K의 것과는 다르다. Kiparsky는 10음절 IP행의 복잡도지수의 상위권을 (67)에서와 같이 30으로 정한다.

21) 그러나 이에 대해 Beruhardt(p. 130)은 H-K의 입장을 옹호하여 말하기를 공명 (sonorant) 자음으로 분리된 2개의 음절의 연쇄형이 발음하기 힘들지 않은 것은 이들은 obstruents와는 달리 힘 (pressure)이 덜 요구되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음성학적 이유가 성립안되는 것은, 개입 자음은 공명 자음 외에 even → e'en에서와 같이 유성 마찰음을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67) Never, never, never, never, never.(King Lear)

즉, never의 기저형의 강세형은 41이며, 이의 파생형의 강세도는 14이어서, 한 음보의 양자간의 차이는  $3+3=6$ 이어서, 이 행의 복잡도지수의 총수는 30이 된다. 보통 복잡도지수가 15에 이르면 그 행의 기저운율형을 파악하기 힘들므로 영시에서 허용되는 실제 복잡도지수의 상위권은 15라는 것이다.

또한 Kiparsky는 시행의 복잡도지수를 음형적(즉, 음절수 내지 강세수)인 것에만 의해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이것을 그는 labeling mismatch라고 함) 기저형(meter=M)과 표면형(language=L) 간의 경계선의 차이, 즉, 운율의 음보경계선과 언어의 구문경계선 간의 차이(이것을 그는 bracketing mismatch라고 함(1977, 223))도 포함시켜 산출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H-K이론에서는 시행 (2)와 (3)은 모두 labeling mismatch가 없어서 복잡도지수가 0인 기본형이나, 실제로 하기 (2')와 (3')에 표시된 바와같이 (3)은 bracketing mismatch가 있는 행이어서 (2)가 (3)보다 더 자연스러운 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Bracketing mismatches should contribute some complexity even where are no labeling mismatches whatsoever.) (Kiparsky 1977, 224).



그러나 이 양종류의 mismatch중에서 labeling mismatch가 더 혐적(more salient)하는것 같으나, 그것이 어느 정도일지 지금의 연구상태로서는 알 수 없다고 한다(p. 227).

반면 Bernkardt(1974)는 시행의 복잡도지수 (MT1)를 Jespersen에서 와 같이 시행의 운율성과 비운율성을 기저정규형과 표면형간의 일치, 불일치로서 결정하지 않고 위치의 변화(change of position)도 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Jespersen에서와 같이 IP행의 각 위치별로 일치성을 검토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위치가 아니고 정규형(the normal line)과 실제 형간의 위치변화이기 때문에 IP행의 변화위치는 10개가 아니고 9개로

간주한다. 그리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 (68) (a) 일치(affirming)
- (b) 모순 상반(contradicting)
- (c) 중립(neutral)

의 3현상으로 나누고, 시행의 운율성은 양형간의 일치된 위치변화의 확률이 상반변화위치보다 많으면 운율적이고 그 반대현상은 비운율적이며 양형이 균일할 때는 그 행의 운율성은 중립이라는 것이다. 즉, IP행에서 중립변화위치의 수가 4보다 많으면, 다시 말해서 중립위치가 他 위치보 다 많으면 운율에 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그 행은 詩的이 될 수 없으며 만일 4보다 낮으면 그 행은 운율의 변화가 풍부하여 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규시행은 운율적이며 시적(verse-conscious)인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운율행에서 허용되는 최고복잡도지수는 H-K에서와 같이 9이며(p. 132이하), 9이상은 비운율행이라하는데, 그 이유는 이탈형보다 지배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하기 도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복잡도지수가 6인 행은 운율적이기도 하고 중립적이기도 하며, 잡도지수가 7에서 9의 행은 운율적이기도 하고 비운율적이기도 하며 또 복한 중립적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운율행 : (복잡도지수) 0~9

비운율행 : 7~19

중립행 :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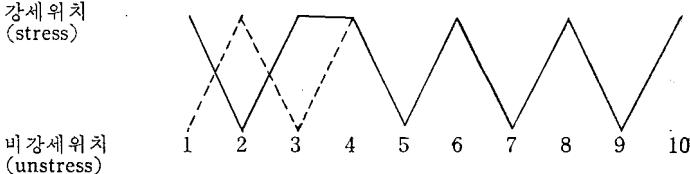
예를 들어 Magnuson-Ryder (=MR) (1971, 204)가 열거한 가상행

- (69) Fly away! fly away! you dangerous thing<sup>22)</sup>

의 운율형을 Beruhardt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22) 이것을 Magnuson-Ryder는 비행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E위치, 즉 짹수위치에서는 강세음절이 와야하고 O위치, 즉 홀수위치에서는 비강세음절이 와야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의 하기 규칙 5의 제약에 의해 운율내지 비운율이 결정된다. Rule 5: F→[-ST]/o[+ST]X\_\_ 즉, 첫 O위치에 강세음절이 오면 다음 O위치에서는 정상적인 비강세음절이 와야한다는 것이다 (69)의 fly away는 이 규칙을 위배한다. 그래서 M-R은 말하기를 이 시행은 7째위치부터만이 운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M-R의 (70) Of the wide world, dreaming on things to come. (Sonnet 107. 2)는 Rule 5를 위배하지만 실제로는 운율적인 정행인 것이다.

(71) 강세 위치  
(stress)

(69)의 위치변화의 분포는 6:2:1로서, 일치된 위치변화가 6이고, 상반된 것이 2, 그리고 중립이 1이다. 그래서 이 행은 正行으로 판정되는 것이다.<sup>23)</sup>

반면 (12)와 같은 가상행은 H-K의 SM원칙에 의해 비행으로 판정되나, Beruhardt는 이 시행이 비행인 것은 SM원칙에서가 아니라 이 시행의 위치변화분포가 1(일치) : 5(상반) : 3(중립)이어서 상반위치(deviations)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72) Down the long tower-stairs, hesitating.(Tennyson, Idylls of the king)

는 H-K에 의하면 정행이나, Beruhardt에 의하면 이 시행의 위치변화분포가 2:3:4여서 상반위치가 일치하는 위치보다 많아서 비행으로 분석된다. 또한 (21)은 H-K이론에 의하면 비행이나, Beruhardt이론에서는 이 시행의 위치변화분포가 4:3:2여서 운율적이라는 것이다(p. 127).

이와같이 동일시행의 복잡도지수가 학자들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21)에서와같이 how, many같은 낱말의 강세부여의 여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다음 항목 (VII) “강세부여규칙” 참조) Beruhardt(p. 127)은 many에는 강세를 부여하나 반대로 how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H-K와 Beruhardt간의 복잡도지수의 측정법의 차이는 전자에서는 이탈형을 어떤 한개의 특징요소(a single feature of distribution), 즉 SM에만 두는 반면, 후자는 이탈형의 전체적분포(the overall distribution of deviations)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H-K는 실현규칙의 순서배열을 복잡도의 순위(hierarchy)로 측정하며, 또한 後택칙이 적용된 행이 先택칙이 적용된 행보다 복잡하다는자(p. 142), 나아가서는 마지막 택칙을 위배했으면, 그 위치만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全시행이 비행이라고 하는 등등의 주장에 대해, Beruhardt는 부정의 뜻을 표현한다. 그는 복잡도의 순위는 시행 전체의 복잡

23) (69)는 또한 H-K이론에서도 정행으로 판정되나, Kiparsky이론에서는 2의 (32)의 MR2를 위배하게 되어 비행으로 판정된다.

도를 표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이탈형의 수와 분포가 그 행의 운율성을 결정하는 것이니까(the *number and distribution of deviations determines which lines are metrical*) (p. 137), 어떤 한 규칙(예, 한 택칙)으로 그 행 전체의 운율성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행중의 한 위치의 이탈형과 관련되며, 그것으로 그 행 전체의 운율성을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sup>24)</sup>

#### (IV) 강세부여규칙

Jespersen은 시항의 기저운율은 상승(ascent)과 하강(descent)의 2개 강세뿐이지만, 영시의(표면형)분석에 있어서는 종전의 강·약의 2강세 원칙을 전적으로 잘못된 것(fallacy)으로 간주하여 올바른 운율분석을 위해서는 4개의 표면강세, 즉 1-강세(strong), 2-강세(half strong), 3-강세(half weak), 4-강세(weak)의 필요성은 역설하였다. (§9). 그리하여 IP시행(2b)의 기본운율형과 언어강세형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72) (M) a/b\ a/b\ a/b\ a/b\ a/b\ a/b(\`a).  
 (L) 4 1 4 1 4 1 4 1 4

이것은 곧 시행의 추상운율형(M)에는 상승과 하강의 두 강세밖에 없으나, 시항의 표면운율형, 즉 시행을 구성하는 단위의 자연언어운율은 4개강세로 표시된다는 뜻이다. 또한 Jespersen은 시행의 강세를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간주한다. 즉 시행의 각음절의 강세도는 개개음절이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앞뒤음절의 강세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it is the relative stress that counts) (§10), 그리고 (19) 참조) 그리하여 한음절의 강세도는 주위음절의 강세도에 따라서 약음절이 상승되기도 하고 강음절이 약화되기도 한다고 본다(§15).

H-K도 초기이론(예, 1966)에서는 Jespersen과 마찬가지로 중간단계의 강세(secondary stress)도 인정하는 다수 강세형을 주장했으나(SM원칙의 보편화를 위해) 1971년에 와서는 강세·비강세의 2강세만을 인정하게 되었다: By "stressed syllable" we mean any syllable which contains a full stressed vowel (p. 164 각주 3)...lumping together all syllables

24) 그러나 일반언어에 있어서도 문장의 한곳이 잘 못되면 전문장이 비행으로 간주된다. 예: \*who does he go out to? 그러므로 Bernhardt의 이런 비평은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with lesser stressed and unstressed vowels under the heading of “unstressed syllables”(p. 164). 그리하여 표면시형분석에 있어서 Jespersen 와는 달리 기저형강세에 있어서나 표면형강세에 있어서도 2개 강세인 강세·비강세만을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1971년에 와서는 강세음절을 받을 수 있는 낱말은 중요품사어 (lexical word)에만 극한하고, 기능어는 모두 비강세어로 취급했다.

Jespersen은 그의 시형론에서 강세와 관련해서 낱말강세, 복합어강세, 구 및 절 강세(NSR) 리듬규칙등 외에도 강조 및 대조강세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생성시형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형론에 필수적인 강세 규칙은 낱말강세, 복합어강세 및 NSR이고, 나머지는 임의적 규칙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운율론에 필요한 강세규칙은 H-K(1971a)가 주장하듯 낱말강세 (lexical, main stress) 규칙뿐인지<sup>25)</sup> 또는 모든 5개 규칙이 필요시 적용되는지이다. 이에 대해 Beaver (1971b, 185-86)는 후자의 입장을 택하고 있다: This system accepts as metrically significant all of the stress rules in the language, rather than imposing a metrical filter that blocks out the compound and nuclear stress rule.

강세음절은 H-K이론의 SM원칙과 직결되기 때문에 강세음절을 어떻게 규정짓느냐에 따라서 한행의 SM수뿐만 아니라 시행의 복잡도 내지 시행의 정·비행의 운율성도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이 장에서는 Jespersen에 언급된 이들 諸강세규칙의 타당성을 이와 관련된 최근이론과 비교 검토해 보겠다.

### §1. 낱말강세규칙 (word stress; lexical, major category, main stress rule)

낱말강세는 중요품사어에 부여되며, 중요품사는 대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73) a. 명사
- b. 본동사(non-modal main verb); 즉, 조동사 또는 be와 have와 같은 遷辭동사(copular verbs)를 제외한 본동사. Beaver(1969, 259)는 조동사와 be동사만을 제외한다.
- c. 비지정형용사(non-determinate adjectives); 즉, many같은 관사내지 지정사같은 역할을 하는 형용사는 제외된다.
- d. 비접어부사(nonclitic adverb); 예를 들어 how, when 같은 代부사 또는 therefore, however 같은 문장연결부사는 제외된다. H-K(1971b)에

---

25) 그러므로 H-K는 복합어와 NSR를 모두 level stress로 취급한다.

서는 eat up의 up같은 불변화사(verbal particle)를 중요품사로 포함시킨다.

반면 강세음절을 품사별로 분류하지 않고 음절의 강도(syllabic weight)에 의해 분류하기도 한다(Chatman 1965, 123 이하), 그리하여 Beaver (1968, 311-312)는 Chatman에 의거하여 음절을 다음 5종류로 구분한다

- (74) a. 非弱化 일음절어 完全모음 (nonreducible full-voweled monoplastic words); 즉 약화되지 않은 완전모음을 지닌 일음절어. 예 : straight, bright 등.
- b. 약화일음절어 완전모음 (reducible full-voweled monosyllabic words). 예 : to, shall, you, it, can 등.
- c. 多음절어의 강세 음절 (stressed syllables of polysyllabic words).
- d. 多음절어의 비강세 완전모음 (full-voweled unstressed syllables in polysyllabic words).
- e. 多음절어의 비강세 약화모음 (reducible unstressed syllables in polysyllabic words).

(74)에서 SM이 될 수 있는 음절은 a와 c형이다. 예를 들어

- (75) a. Oh that this too too solid flesh would melt
- b. Thaw, and resolve itself into a dew. (Hamlet 1.2. 129-130)

에서 하선이 쳐진 음절은 SM이 될 수 있는 환경(13.b: ‘정의’ 참조)에서는 SM이 될 수 있는 음절이다. too /tuw/는 비록 완전모음 일음절이지만 too much에서와 같이 가끔 빠른 속도로 발음하면 /ti/로 약화되기 때문에 SM이 될 강세음절이 되지 못한다.

상기 兩 방법은 음절의 강세형을 독립적으로 측정한 것이나, Jespersen은 상대적으로 낱말내의 주위음절과 비교하여 결정하여, 다음 예시중의 하선쳐진 동일 4-강세음절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3-강세로 상승될 수 있다고 한다 : happily 1-4-3(즉 1-4-4→1-4-3), collocation 3-4-1-4, conversational 3-4-1-4-3. 즉 2개의 연속 4-강세 약음절중 그 낱말의 강세 음절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이다(§6). 물론 이러한 Jespersen의 낱말강세부여 “규칙”은 SPE의 순환(cyclic)강세부여규칙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상기 conversational은 [[[con=vers]v+āt+ion]N+al]A와 같은 내적구조에서 con-에 3-강세, āt에 1-강세를 부여하는 점에서는 같으나, 4-강세가 3-강세로 상승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SPE에서는 순환규칙을 적용함에 따라 강세가 점차 하강은 되나 상승은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Jespersen의 낱말강세부여원칙은 순환규칙

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rhythm rule’ 원칙에 의한 것으로, 이 것은 뒤에 설명하다시피 句뿐만 아니라 낱말에도 적용된다. 그리하여 그는 말하기를 同一강세음절이나 또는 동일비강세음절들을 연속적으로 발음하는 것보다 이들은 강세와 비강세음절로 번갈아 발음하는 것이(하기 (96) 참조) 더 ‘쉽다’고 한다(it is easier to alternate between strong and weak syllables than to pronounce several equally strong or equally weak syllables consecutively (Jespersen 1909, I. §5.41 (p. 156)). 그리하여 이 결과 when 2 was in Italy라는 문장에서(s위치에 있는) 2는(w위치에 있는) 선행하는 when이나 뒤따르는 was보다 강하게 발음되므로, 이런 문장의 강세형은 4-3-4-4-1-4-3이라는 것이다.

SPE에서  $[[\text{solid}]_A + \text{ity}]^N$ 의 강세형은 첫 cycle에서 solid 그리고 둘째 <sup>21</sup>cycle에서는 solidity가 되어야 하나, 실제 이 낱말의 발음은 첫 음절이 무강세인 solidity이므로, 이것을 그들의 auxiliary reduction 규칙에 의해 첫 음절의 2-강세가 표명형에 나타나지 못하게끔 막는다. Schane(1979 b, 559)도 지적하다시피, SPE는 왜 첫 음절이 비강세(destressing)가 되어야 하나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Auxiliary reduction 규칙은 단지 非形이 생성되지 못하겠금 꾸며낸 응급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Jespersen의 음보강세교체원칙에 입각하여 solid의 운율적 강세형이 sw이라면 solidity의 것은 ws로 시작하는 wsws형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런 강세교체식으로만 solidity의 첫 음절이 w, 즉 destressing이 설명되는 것이다. 비록 Jespersen은 영어의 복잡다양한 강세형(stress contour)을 설명할 수 있는 뚜렷한 체계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리듬으로 복잡한 강세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그의 예민한 통찰력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예를 들어 schane의 강세부여규칙은 사실 이 리듬원칙에 입각한 것으로서 s와 w음절의 교체리듬의 개념으로 이런 불충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schane는 solidity의 강세형을 solid]it+y]과 같이 설명한다(p. 564 참조) 즉, -ity접미사가 붙으면 前  
s w  
↓  
w s w w

前음절 강세부여규칙(Antepenultimate Rule)에 의해 s가 끝에서 제3음절에 부여되어(그의 규칙 (18) 참조), solid의 첫 음절은 음절약화규칙(Weakening Convention)에 의해(그의 규칙 (5) 참조) 새로 부여된 s가

전에 부여된 s와 인접하게 되면, 후자의 s는 w로 변하게 된다(the assignment of S causes a contiguous (previously) assigned S to be converted to W).

## §2. 복합어 강세부여규칙

Jespersen은 torchbearer와 quicksilver등의 3음절 복합어의 강세형을 1-2-4(내지 1-3-4)로 간주한다(§12, §13). 즉 낱말내에서 강세음절이 겹칠 때 둘째음절이 약화되는 것은 현대영어의 복합어 강세규칙에 해당한다. 그러나 Jespersen은 복합어도 자기 리듬원칙에 입각하여 강세음절간의 제3강세음절은 약화되는 반면, 약음절간의 제3강세음절은 강화되어, to walk uphill의 uphill의 강세형은 3-1이나 an uphill walk의 uphill의 강세형은 1-3이 되고, 또한 good-natured의 강세형은 1-1이나<sup>26)</sup> a good-natured man에서는 1-2내지 1-3이 된다는 것이다(§5)<sup>27)</sup>.

H-K에 의하면,

(76) To dry the rains on my storm-beaten face. (Sonnet)  
 w s w s w s w s w s

(77) The millere was a stout carl for the nōnes. (Chaucer A. Prol. 545)  
 w s w s w s w s w s

에서 (76)의 storm-beaten은 복합어여서 복합어 강세규칙에 의해 1-강세가 맨 왼쪽(여기서는 w위치)에 오며, (77)의 stout carl은句여서 NSR에 의해 1-강세가 맨 오른쪽(여기서는 w위치)에 오게되면, 둘다 w위치의 강세도가 앞뒤주위음절의 강세도보다 높아서(즉, 전자는 ×/^, 후자는 ^/×) SM원칙에 위배되게되어 양행은 비행이 되고 만다. 결국 이런 형의 운율성을 구제하기 위해 복합어나 형용사+명사의 명사구의 강세형을 동일(level)강세로 구성된 것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sup>28)</sup>.

26) 그의 2 (1909, p. 306)에서는 복합어의 양요소가 동일강세(equal, level)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27) SPE의 강세부여규칙에 의하면 전자는 2-1-3이고, 후자는 1-3-2가 된다.

28) 즉, 다음 예시에서와 같이 복합어의 독립형태소마다 1-강세를 받게된다.

blackbird, well-contented. M-R (1970, 807 각주 21)도 storm-beaten, grandfather 같은 복합어는 두개의 [+strong]음절을 받는다고 한다. Keyser (1969)에서는 복합어의 강세형을 Hring-Dene에서와 같이 표시하여 중간 단계의 제2강세의 운율적 중요성을 인정했으나, H-K(1971a)에 이르러서는 중간단계의 강세의 중요성을 부인하여 복합어를 단순어 같이 취급하여 Hring-Dene에서와 같이 첫 형태소에만 1-강세를 부여 한다.

반면 Beaver(1971b, 187)는 일반언어의 복합어 강세 규칙의 적용으로 비행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가 고안한 강세 교체 규칙(Stress Exchange Rule)을 적용하여 복합어 강세 규칙이 적용된  $\overset{1}{\text{w}} \text{-} \overset{2}{\text{s}}$ 를  $\overset{1}{\text{w}}$ - $\overset{2}{\text{s}}$ 로 제조정했다. Wimsatt는 이런 문제를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즉

(78) He understood, and  $\underset{\text{s}}{\overset{1}{\text{brym}}}\underset{\text{w}}{\text{sto}}\text{n}$  by his brother. (Chaucer G. 1439)

(79) Ther nas quick-silver, lytarge, ne  $\underset{\text{w}}{\overset{1}{\text{brym}}}\underset{\text{s}}{\text{sto}}\text{n}$ . (Chaucer A. 629)

에서와 같이 복합어의 첫 형태소에 강세가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둘째 형태소에도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어는 일반언어의 완전한 거울형(mirror image)이 아니어서 시어에서는 일반언어의 linguistic givens와 대조되는 “poetic givens”(즉 poetic tradition 또는 licenses)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ledd, 1969, 73 참조).

### §3.甸강세부여규칙(nuclear (phrasal) stress rule=NSR)

NSR은 어떤 구문단위의 맨 오른쪽 중요 품사어의 강세음절에 1-강세를 부여하는 규칙으로, Jespersen도 시행에서 NSR의 타당성을 시인하여 말하기를, 4-1강세어가 1-강세음절 앞에서는 4-2강세형으로 바꿔진다고 말하며(§25)

- (80) a. But poore old man, than prun'st a rotten tree. (As 2. 3. 63)
- b. The course of true love never did run smooth. (Mids. 1. 1. 334)
- c. Oh, that this too too solid flesh would melt. (Hamlet 1. 2. 129)
- d. A long street climbs to one tall tower'd mill. (Tennyson, En. Arden5)

에서 하선쳐진 3단위의 강세형은 1-1-1에서 1-2-1(내지 1-3-1)로 조정되며(§5), 또한

- (81) a. In the sweet pangs of it remember me. (Tw. 2. 4. 16)
- b. Of a strange nature is the sute you follow. (Merch. 4. 1. 177)
- c. I will feedé fat the ancient grudge I beare him. (Much 1. 3. 48)
- d. Did I deserve no more than a fooles head? (Merch. 2. 9. 59)

에서 하선이 쳐진 소위 말하는 2중 약·강음보(a double iambus)의 강세형을 4-3-2-1로 간주한다. 그리고 또한 1-강세 명사앞의 형용사는 2-

강세를 받으며, (81d)의 head 앞의 fool's를 형용사 같이 취급한다. fool's (It is worth noting how frequently this figure contains an adjective (stressed 2) before a substantive (stressed 1); fool's before head is equivalent to an adjective §21).

그러나 문제는 시형분석에 있어서 낱말강세규칙 외에 NSR도 적용되느냐이다. H-K이론(1971a)에 의하면 시형분석에서는 낱말강세규칙만이 적용되며, 복합어(p. 157)나 句(Halle 1970, 73각주 6)는 각 구성 중요 품사어(lexical morpheme)마다 동일 1-강세(즉 level stress)를 받게 되므로 복합어 강세규칙이나 句강세규칙의 적용을 부인한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서 H-K는 Jones(1960, §959)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영국영어에서는 복합어나, 형용사+명사甸에는 강세종속규칙(stress subordination)이 적용안되어 각 구성요소마다 동일강세(level stress)를 받게 된다고 한다(Both the words have as a rule strong stress). 복합어의 예로 Jones는 the castle wall, roast beef 등을, 그리고 형용사+명사의 명사구의 예로는 a useful book, 그리고 형용사구로는 too much, all right 등을 든다. (§959) (H-K 1966 각주 2; Halle 1970, 73 각주 6 참조).

그러나 Beaver는 H-K가 주장하는 형용사+명사구의 동일강세형은 잘못된 것(wrong assumption)이라고 단정하고(1971b, 190 각주 14와 16 참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영시의 형용사+명사구의 강세형을 역사적으로 조사하였다. 이 조사통계표에 의하면, 이 구가 w-s위치에 배열되는 것이 s-w위치에 배열되는 것보다. 두배이상, 즉 80%나 된다고 지적하고(1971a, 591-94; 1974b, 9), 이것은 결국 영국시에 있어서 NSR이 형용사+명사구문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한다(또한 Harvey 1980, 75 각주 7과 12 참조).

#### §4. 강세교체규칙(Stress Exchange Rule=SER)

SER은 NSR에 의해 w위치에 오게되는 SM을 이동하는, 즉 w위치의 1-강세를 s위치의 것과 교체하는 강세조정규칙의 하나로 Beaver는 이를 처음에는 stress swapping(또는 metathesis) rule (1970, 447)이라고 불렀다. Wimsatt(1970)도 이런 강세조정규칙을 시인하는듯 말하기를, 강세를 운율에 맞게 이동할 수 있으며('tilt' the stress in the direction of meter), 이것이 linguistic givens의 하나라고 한다. Beaver도 이에 동감하여 말하기를, 운율에 맞게끔(to 'fit' the meter) 비행을 재조정하게 하는 일의적 규칙의 하나인 SER가 영어강세부여규칙의 하나라는 증거를

내세운다.

SER의 적용범위는 강세가 겹친 두개의 1음절이로 구성된 단위로서 양 요소간에 구문경계선이나 약음절이 개입되지 않은 구문단위(예 일음절 형용사+일음절명사)일 경우. 앞뒤의 1-강세 위치는 다음 예시에서와 같이 교체된다.

(82) (=77) The millere was a stout carl for the nones.	<sup>s</sup> 1      1 2      1 1      2	(lexical stress) (NSR) (SER)
--	--	------------------------------------

그러나 H-K이론에서는 낱말강세규칙만이 적용되므로 앞·뒤 양음절이 모두 1-강세를 받게되어 강세중화원칙에 의하여 흘수인 w위치에 1-강세가 오더라도 SM이 될 수 없으니까, 자연히 SM원칙을 위배하지 않게 되므로, SER은 필요없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영어의 복합어강세규칙과 句강세규칙이 영시에 적용안되느냐인데, Beaver는 NSR의 적용성을 인정하여 이와같은 SER을 내세운 것이다.

### §5. 약음절 句강세교체규칙(Phrase Alternating Stress Rule=PASR)

Jespersen은 다음 예시 (83)에서와 같이 4-1강세형이 1-강세음절앞에 위치했을 때 전자는 2-4(내지 3-4) 강세형으로 변한다고 말하며 (§25), 또한 Jespersen(1909 §5. 41(p. 156))에서도 upon, among등의 전치사의 첫음절은 강세음절 앞에서 가끔 강화된다고 지적했다(the first syllable of prepositions like *upon*, *among*, etc., is often strengthened before a strong syllable). 다시 말해서 1-강세음절 앞에서 upon, among, without 등의 기능어의 강세음절은 원래의 둘째음절에서 첫음절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 (83) a. The other upon Saturn's bended neck. (Keats, Hyper. 45)
- b. Protracted among endless solitude. (Wordsworth, Prel. 5. 146)
- c. A spirit without spot. (Shelley, Adon. 45)

상기 Jespersen의 예시 (83)은 1-강세를 받지 못하는 기능어에 강세를 부여하는 Beaver의 PASR(1974b, 11-12)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Beaver의 PASR(또한 1971b, 189 각주 2; 1971a, 611 참조)는 같은 운율단위(phonological unit=PU)내의 1-강세음절로부터 왼쪽으로

두 번째의 기능어의 약음절에 1-강세를 부여하는 규칙 (84)이며, 이외에 시는 (85)와 같다.

- (84) V → [+stress]/... \_\_\_\_ syllV... ]<sub>PU</sub>

(85) a. Particularly amongst sun-burnt nations. (Byron, Don Juan)  
                   s   w           s  
     b. And I will comment upon that offense  
         When to the sessions of sweet silent thought. (Sonnet 89)  
     c. As fresh-poured red wine of a mighty pulse. (Browning)

Beaver도 처음에 이 규칙을 제 2 강세교체규칙(the second alternating stress rule=SASR)이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多음절에서 1-강세를 2음 절 앞(antepenultimate syllable)으로 옮기는 SPE(p. 78)의 Alternating Stress Rule(ASR)

- (86) V → [1-stress]/ C<sub>0</sub> V C<sub>0</sub> V̄ C<sub>0</sub> ]

과 관련시켜서이다. 예 : *hurricane*, *anecdote*→*húrricane*, *anécdote*.

PASR은 일반언어의 규칙이 아니고 시에서만 임의로 적용되는 규칙이다. Wimsatt (1970, 779)도 (87)에서와 같이 s위치에 오는 기능어에 강세를 부여하는 기능어 최적강세(minor stress maximum, 즉 그가 말하는 ‘foot hill’)의 윤율적 타당성을 주장한다.

- (87) a. A little learning is a dangerous thing. (Pope)  
b. Was this the face that launched a thousand ships? (Marlowe)

기능어는 운율환경 (metrical contexts)에 따라서 강세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H-K (1971b, 163)도 지적했듯이, (88)에서 와 같이 w위치에 강세음절이 왔을 때는 적용안된다.

- (88) That was under a rokke y-grace. (Chaucer BD 164)  
w. s.

반면 Kiparsky(1975, 597)는 하기의 자기의 음형조정규칙B(prosodic rule) (89)

- (89) 동일 구문 단위에서는 1-강세만을 일정한다 (Disregard all but the strongest).

stress in each domain # # X # #, were X does not contain # #)

예 의해 2음절 전치사 among, against, upon, over, under, after등의 약 음절은 모두 무강세로 간주되기 때문에, 1-강세어 앞에 위치한 약음절기능어에 강세를 부여하는 PASR을 시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 (90) Pride, malice, folly against Dryden rose. (Pope, Essay on Criticism, 2. 458)

의 # # <sup>3</sup>against # <sup>1</sup>Dryden # #은 prosodic rule(89)에 의해 # # aginst # Dryden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들 기능어가 중요품사어의 후접사 (proclitic)가 아니고 기능어 against, under, before...들로서만 구성된 구문에서는 이들 기능어는 독립항목으로 취급되므로, 이런 때나 또는 대명사 같은 무강세 선두어 (head) 앞에 위치했을 때는 (89)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 기능어는 강세를 받게 된다고 한다.

이와같이 H-K는 시행의 강세음절을 낱말강세규칙으로만 규정하는 반면, Beaver는 하기 4종류의 강세부여규칙으로 강세음절을 결정하고, 이를 규칙의 순위(hierarchy)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1974b, 13 또한 1971a, 612-13 참조).

- (91) 1. Lexical Stress Rule
2. NSR와 복합어 규칙
3. PASR
4. SER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중에서 3과 4는 임의적 규칙이며, 또한 SM의 순위는 1>2>3>4>無 SM이다.

#### §6. 리듬규칙(Rhythm Rule=RR)

Jespersen(§25)은 4-1강세형이 바로 뒤따르는 낱말의 1-강세음절 앞에서 2-4(내지 3-4) 강세형으로 변하는 것은 2음절 기능어(예, 전치사)뿐만 아니라 2음절 중요품사어 (lexical word)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전자의 예로 (83c)의 a spirit without spot (Shelley)로 그리고 후자의 예로는

- (92) in forlorn servitude. (Wordsworth)

를 인용한다. 그러나 사실 (83c)는 PASR에 속하고, (92)는 이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리듬규칙에 속한다.

Jespersen은 이어 말하기를 날말의 강세형은 리듬원칙에 의해 가끔 산문의 강세형과 달리 나타난다고 하여 (rhythm very often makes itself felt in spite of what might be expected from the natural (logical) value of the words) (§15). 예를 들어 to walk uphill의 uphill의 강세형은 3-1로 나타나나, an uphill walk에서의 uphill의 강세형은 1-3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한편 George Puttenham (*The Arte of English Poesie*, 1589, Bk II)은

- (93) When raging love with extreme paine...  
 s w s

을 “sweet and harmonical iamb”형이라고 한다. 여기에 분명히 말해 두고 싶은 것은 (93)에서 extreme paine의 구문단위의 extreme의 첫음절에 1-강세를 부여한 것은 리듬규칙에 의한 것이지, 시행의 기저운율에 알맞도록 임의로 강세를 이동(‘tilting’)하는 것은 아닐 것은, 후자와 관련된 것은 상기 저서의 다른 곳에 별도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Harvey, p. 70 참조).

현대 영시에도 하기 예시에서와 같이 3-2강세형의 날말이 다음 날말의 1-강세음절 앞에서는 2-3강세형으로 변하는 RR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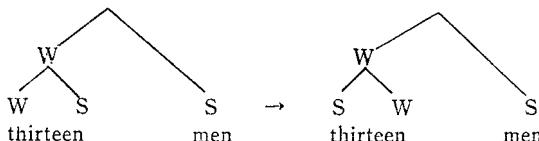
- (94)  $\begin{matrix} 3 & 2 \\ 16 & \rightarrow & 16 \end{matrix}$   
 3 2      2 3      1  
 sixteen → sixteen tons  
 unknown → unknown author.

이것을 Kiparsky(1975, 595)는 다음과 같은 RR로 풀이한다:

- (95) [+stress] → [2 stress]/\_\_\_\_ X [2 stress] Y [1 stress] where X, Y contain no 1 or 2 stress, and no p].

즉, 동일甸내의 # #X# #영역 내에서 3-2강세형어는 다음에 오는 1-강세어 앞에서 2-3강세형으로 뒤집힌다는 것이다. 이것을 Kiparsky(1979, 218이하)는 다음과 같은 운율나무형(metrical tree)으로 표시한다.

(96)



즉 두개의 ss가 겹치는 부자연스러운 운율을 자연스러운 기본교체운율

(ws)로 조정하는 것이다(Liberman-Prince, p. 312). 그러므로 다음 행들은 상기 RR(96)에 의해 설명된다.

(97) a. And extreme fear can neither fight nor fly. (Luc. 230)  
 s w s

b. And from the forlorn world his visage wide. (Sonnet 23)  
 s w s  
 (forlorn world: 321→231)

Kiparsky가 이 RR를 적용하는 이유는 자기의 운율규칙 (32)의 MR2a를 위배하는 행들을 정행으로 구체하기 위해서이다. 즉, 형용사+명사甸의 강세 형이 VV]<sub>Adj</sub> V...]<sub>N</sub>인 경우 RR(95)가 적용되어 MR2a를 위배하지 않게 한다.

한편 Schane(1979a, 492)은 RR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98) 1-강세어 원쪽에 2개의 하위강세를 가진 낱말이 선행할 경우, 1-강세에 가까운 하위강세가 하강한다(When there are two subordinate stresses to the main stress, the one close to the main stress is weaker).

그는 이 RR을 2개 규칙, 즉 Weakening Convention(WC)과 Initial Constraint(IC)로 도출한다(1979b, 592).

(99) thirteen] student]

w s      s w  
 ↓  
 w w      s w (WC)  
 ↓  
 s w      s w (IC)

예 : fifteen→fifteen people, Romance→Romance language

이 RR는 또한 명사구외에도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에도 적용된다. (p. 593).

2      1      2      3      1  
 context- sensitive→ context-sensitive rule  
 2      1      2      3      1  
 brand new→brand new car

그러나 하기 (100)에서와 같이 선행하는 낱말의 첫음절이 비강세 약(light)음절인 경우 RR는 적용안된다(RR의 2개 제약에 관해서는 Kiparsky 1979, 425이하 참조. 또한 Kiparsky 1977, 220; Harvey, p. 75, 각주 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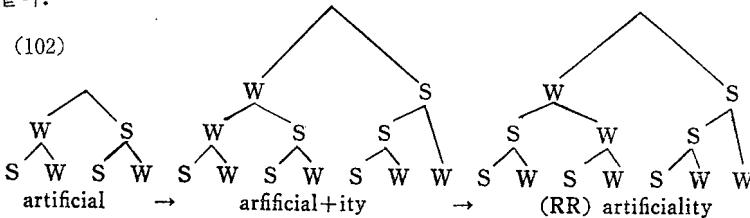
(100) Or my divine soul answer it in Heaven. (R2.1.1. 38)

다시 말해서 RR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1-강세음절 앞에 2-강세가 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101)에서와 같이 적용안된다(Schane 1979b, 593)

(101)  $\begin{array}{ccccc} 1 & 1 & 2 \\ \text{Montana} & \text{cowboy} \rightarrow^* & \text{Montana} & \text{cowboy} \\ \text{serene} & \text{students} \rightarrow^* & \text{serene} & \text{students} \\ \text{w s} & \text{w s} & \text{s w} & \text{s w} \end{array}$

즉 이들의 기저강세형에는 변동이 없다.

리듬규칙은甸의에도 날말에도 적용된다. 단지 차이점은 날말인 경우에는 RR가 필수적으로 적용되나, 구인 경우에는 선택여지가 많다(have greater optionality)(Schane 1979b, 592). RR가 날말에 적용되는데 대해 SPE는 말하기를 1-강세 왼쪽에 2개의 3-강세는 허용안되므로 RR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 1-강세에 가까운 3-강세가 4-강세로 하강한다:  
 $\begin{array}{c} {}^3 {}^3 {}^1 \\ \text{artificiality} \rightarrow 341. \text{ 이것을 Kiparsky식으로 나무형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 \text{같다.} \end{array}$



### §7. 강조(emphatic) 강세 및 대조(contrastive) 강세

시행의 강세를 정하는데 있어서 날말의 고유강세(inherent lexical stress)만이 적용되는지 또는 강조 및 대조강세도 적용되는지, 만일 후자도 적용된다면, 그것은 (a) 음운순환규칙(phonological cycle)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b) 문체규칙(stylistic postcyclic semantic scanning)으로 결정되는지가 문제다. 만일 (a)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 강세규칙은 문법규칙(rules of grammar)에 속하는 운율규칙이 되겠으나 (b)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것은 수행규칙(rules of performance), 즉 문체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들 非고유(noninherent) 강세규칙은 시행분석에는 적용 안된다고 한때 말한바 있지만, Magnuson-Ryder(1970, 815)도 지적했듯이 어떤 때는 (103)에서와 같이 대조강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H-K의 SM원칙을 위배하는 비행이 될 때가 있다.

- (103) Or rather, he stopped me. (Dickinson)  
 w s w s w s

만일 (103)의 *he* 또는 *me*, 또는 양자에 대조강세가 부여되지 않으면 다섯째 위치인 *w*에 강세가 와서 비행이 되고만다. 그리하여 H-K는 강조내지 대조적현상으로 강세를 받게되는 가능어를 중요품사어와 동일하게 취급한다(*we include among major category words any word with emphatic or contrastive stress*) (1971b, 157). 그 이유는 강조강세도 “*linguistic givens*”이니까(1971b, 174; 1966, 201-202) 이것의 운율적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Standop (p. 68)도 강조강세와 대조강세를 lexical stress와 동일시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Magnuson-Ryder(1970, 794)는 H-K와는 달리 대조강세의 운율적 중요성은 (104)에서와 같이 인정하지만 강세강조의 운율적 중요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 (104) Thou dost *love* her, because thou know'st I love her.  
 w  
 If I *lose* thee, my loss is my love's gain. (Sonnet 42)  
 w

만일 하선쳐진 *w*위치의 *love*와 *lose*에 강세가 오게되면 SM원칙에 위배되어 비행이 되니까 다음 *s*위치의 *her*와 *thee*에 대조강세를 부여하면 강세중화원칙에 의해 *w*위치의 강세음절이 SM이 되지 못하므로 正行으로 운동된다(H-K 1971b, 174).

Beaver는 대조강세를 강조강세와 구분하여 말하기를 대조강세는 “partly embedded within the grammar(1971a, 587 각주 2와 3; Gunter 1966참조)이나, 강조강세는 performance 규칙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 (Beaver 1969, 270)<sup>29)</sup>. 그 이유는 대조강세를 적용안하면 SM원칙을 위배하는 행이 초래되나(1971b, 182 각주 6) 강조강세는 어디까지나 SM을 설정하는 임의적 규칙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강조강세는 문법(grammar)과 performance간의 중간단계에 위치하는 것 (intermediate status)에 해당한다고 한다(1969, 271).

Napoli(p. 40)에 의하면 보통 시분석에서는 기저추상운율형과 단하

---

29) The position of emphatic stress is marked in the surface structure, and we neglect matters that we have assigned to the theory of performance (SPE, p. 25 각주 13).

나의 표면형밖에 없으나, 동시(nursery rimes)에는 표면형이 두개 있어서, 제 1 표면형(surface pattern I)에서는 일반언어원칙(linguistic rules)을 위배할 수 있으나, 동시에만 있는 제 2 표면형(surface pattern II)에서는(주어진 조건내에서) 일반언어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태리시에는 대명사(clitic pronouns)와 관사(articles)는 일반언어강세규칙으로서는 강세를 부여받을 수 없으나 동시에서는 이들이 s위치에 을 경우 강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Jespersen(§16)은 중요 품사인 경우 (105)에서와 같이 리듬의 정상형을 회복하기 위해 약음절이 s위치에 올 때 대조강조강세를 부여 할 수 있다고 한다.

- (105) a. Clarence still breathes; Edward still lives and and reignes. (R3  
           w s                               w s  
           1.1. 161)

b. Never came poyson from so sweet a place. (R 3 1.2.148)  
     w s

c. (=46) Tyrants themselves wept when it was reported. (R 3 1.3.  
           w s  
           185)

그는 말하기를 강조강세(emphatic enunciation)을 위해 낱말의 강세를 첫음절에서 둘째음절로 옮길 수 있으며, 또한 대조효과를 나타내기 위해(a rhetorical device to emphasize a contrast) 어떤 낱말을 특별히 강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Jespersen의 예시는 기능어가 아니고 중요품사어에 해당하는 것어서, 이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능어의 강조에서 대조강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Jespersen의 고유명사의 예(83a)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SPE(p. 78)의 강세교체규칙(alternating stress rule)에 흡사한 것으로, Jespersen도 지적했듯이 Sampson~Samsoun에서와 같이 흔히 고유명사에 일어난다(Hascall 1969, 363 참조)

참 고 문 헌

- Barnes, Mervin, and Esau Helmut. 1978. "English prosody reconsidered," *Langue and Style* 11. 212-222.

Beaver, J.C. 1968. "A grammar of prosody," *College English* 29. 310-

- 331.
- Beaver, J.C. 1969. "Contrastive stress and metered verse," *Language and Style* 2. 257-271.
- \_\_\_\_\_. 1970. "A stress swapping rule in English verse," *Papers from the Sixth Regional Meeting, Chicago Linguistic Society*, pp. 447-453.
- \_\_\_\_\_. 1971a. "The rules of stress in English verse," *Language* 47. 586-614.
- \_\_\_\_\_. 1971b. "Current metrical issues," *College English* 33. 177-197.
- \_\_\_\_\_. 1974a. "Generative metrics." In Alex Preminger (ed.),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enlarged edition. N.Y.: Macmillan, pp. 931-933.
- \_\_\_\_\_. 1974b. "Generative metrics: the present outlook," *Poetics* 12. 7-28.
- Bernhardt, A. Walter. 1974. "Complexity and metricality," *Poetics* 12. 113-141.
- Bridges, Robert. 1921. *Milton's Prosody*. Oxford: Clarendon Press.
- Chatman, Seymour. 1965. *A Theory of Meter*. The Hague: Mouton.
- Chen, Matthew. 1979. "Metrical structure: evidence from Chinese poetry," *Linguistic Inquiry* 10. 371-420.
- Freeman, D.C. 1968. "On the primes of metrical style," *Language and Style* 1. 63-101.
- \_\_\_\_\_. 1969. "Metrical position constituency and generative metrics," *Language and Style* 2. 195-206.
- Guéron, Jacqueline. 1974. "The meter of nursery rhymes: an application of the Halle-Keyser theory of meter," *Poetics* 12. 73-111.
- Gunter, Richard. 1966. "On the placement of accent in dialogue: a feature of context grammar," *Journal of Linguistics* 2. 159-180.
- Halle, Morris. 1968. "Zirmunskij's theory of verse," *The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12. 213-218.
- \_\_\_\_\_. 1970. "On meter and prosody," In M. Bierwisch and K.R. Heidolph (eds.), *Progress in Linguistics*, The Hague: Mouton,

- pp. 64-80.
- Halle, Morris and S.J. Keyser. 1966. "Chaucer. 1966. "Chaucer and the study of prosody," *College English* 28. 187-219.
- \_\_\_\_\_. 1971a. *English Stress*: its form, its growth, and its role in verse. N.Y.: Harper & Row.
- \_\_\_\_\_. 1971b. "Illustration and defense of a theory of the iambic pentameter," *College English* 33. 154-176.
- Harvey, Marshall. 1980. "A reconciliation of two current approaches to metrics," *Language and Style* 13. 64-76.
- Hascall, Dudley L. 1969. "Some contributions to the Halle-Keyser theory of prosody," *College English* 30. 357-365.
- \_\_\_\_\_. 1971. "Trochaic meter" *College English* 33. 217-226.
- \_\_\_\_\_. 1974. "Triple meter in English verse," 12. *Poetics* 49-71.
- Jakobson, Roman. 1960. "Closing statement: linguistics and poetics," In Thomas A. Sebeok (ed.), *Style in Language*. Cambridge, Mass: MIT Press, pp. 350-377.
- Jespersen, Otto. 1909. *A Modern English Grammar*. Vol. I. London: Allen and Unwin.
- \_\_\_\_\_. 1922. *Language*: its nature, development and origin. N.Y.: Macmillan.
- \_\_\_\_\_. 1933 (1900). "Notes on meter," *Linguistica: Selected Papers of Otto Jespersen*. London: Allen and Unwin, pp. 249-274. (The original Danish version was published as "Den psykologiske grund til nogle metriske faenomenes," *Oversigt til det Kongelige Danske Videnskabernes Selskabs forhandlinger*. Copehhagen, 1900. pp. 487-526.)
- Jones, Daniel. 1960.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9th ed. Cambridge: Heffer.
- Keyser, S.J. 1969. "Old English prosody," *College English* 30. 3331-356.
- Kim, Chin-W. 1981. "The rhythmic structure of the *sijo*: a 'metrical' account. (MS)
- Kim, Suksan. 1975. "Problems in Old English prosody," 「영어 영문학」

53. 93-130.
- \_\_\_\_\_. 1980. Korean Verse Structure. (MS)
- \_\_\_\_\_. 1981. "Metrical rules of the classical Korean sijo," read at the SICOL '81, Seoul.
- Kiparsky, Paul. 1975. "Stress, syntax, and meter," *Language* 51. 576-616.
- \_\_\_\_\_. 1977. "The rhythmic structure of English verse," *Linguistic Inquiry* 8. 189-247.
- \_\_\_\_\_. 1979. "Metrical structure assignment is cyclic," *Linguistic Inquiry* 10. 421-442.
- Klein, Wolfgang. 1974. "Critical remarks on generative metrics," *Poetics* 12. 29-48.
- Levin, Samuel R. 1973. "A revision of the Halle-Keyser metrical theory," *Language* 49. 606-611.
- Liberman, Mark, and Alan Prince. 1977. "On stress and linguistic rhythm." *Linguistic Inquiry* 8. 249-336.
- Magnuson, Karl. 1974. "Rules and observations in prosody: positional level and base." *Poetics* 12. 143-154.
- \_\_\_\_\_. and F.G. Ryder. 1970. "The study of English prosody: an alternative proposal," *College English* 31. 787-820.
- \_\_\_\_\_. 1971. "Second thoughts on English prosody," *College English* 33. 198-216.
- Napoli, Donna J. 1978. "The metrics of Italian nursery rhymes," *Language and Style* 11. 40-58.
- Newton, R. 1975. "Trochaic and Iambic," *Language and Style* 8. 127-156.
- Pope, J.C. 1942. *The Rhythm of Beowulf*.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chane, Sanford. 1979a. "Rhythm, accent, and stress in English words," *Linguistic Inquiry* 10. 483-502.
- \_\_\_\_\_. 1979b. "The rhythmic nature of English word accentuation," *Language* 55. 559-602.
- Sledd, James. "Old English prosody: a demurer," *College English* 31.

71-74.

- Smith, B.H. 1968. *Poetic Closure: a study of how poems e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PE=Noam Chomsky, and Morris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 Row.
- Standop, Ewald. 1975. "Metric theory gone astray: a critique of the Halle-Keyser theory," *Language and Style* 8. 60-77.
- Weirather, Randy. 1980. "The language of prosody," *Language and Style* 13. 120-145.
- Wimsatt, W.K. 1977. "The rule and the norm: Halle and Keyser on Chaucer's meter," *College English* 31. 774-788.
- 김주현. 1980. 셀스피어韻律의 再考. 「英語發達史」 民音社, pp. 203-219.